

---

碩士學位 論文

濟州道 文化祝祭의 觀光資源化를 위한 行政의 對應方案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一般行政專攻

玄 春 植

---

碩士學位 論文

濟州道 文化祝祭의 觀光資源化를 위한 行政의 對應方案

指導教授 韓 昌 榮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一般行政專攻

玄 春 植

1995年 7月

# 目 次

I. 序 論	1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2
II. 研究의 理論的 背景	5
1. 傳統文化的 意義	5
1) 傳統文化的 概念	5
2) 無形文化財의 定義와 傳承 意義	7
2. 文化祝祭의 定義와 內容 分類	9
1) 祝祭의 定義와 機能	9
2) 祝祭의 形成과 內容	11
3) 祝祭의 分類	15
3. 文化觀光의 類型과 構成	16
1) 觀光의 定義	16
2) 文化觀光의 類型	18
3) 文化觀光資源의 構成과 特徵	19
III. 文化祝祭의 觀光資源化 事例	23
1. 外國의 文化藝術 祝祭	23
1) 美國의 文化藝術 祝祭	23
2) 日本의 文化 이벤트	27
3) 인도네시아 발리 文化祝祭	31

2. 韓國의 鄉土 文化祝祭 .....	32
1) 韓國의 鄉土 文化祝祭 現況 .....	32
2) 韓國의 鄉土 文化祝祭 實態 分析 .....	38
3) '94 韓國 訪問의 해 觀光 文化祝祭 .....	42
IV. 濟州道 文化觀光과 文化祝祭의 實態와 問題點 .....	45
1. 濟州道 文化觀光的 實態와 問題點 .....	45
1) 濟州道 觀光의 環境的 背景 .....	45
2) 濟州道 觀光 成長의 變遷 .....	47
3) 濟州道 觀光資源의 活用 實態 .....	51
4) 濟州道 文化觀光的 問題點 .....	56
2. 濟州道 文化祝祭의 實態와 問題點 .....	57
1) 濟州道 文化祝祭의 形成背景과 文化的 特性 .....	57
2) 濟州道 文化祝祭의 實態 .....	61
3) 濟州道 文化祝祭의 問題點 .....	69
V. 濟州道 文化祝祭의 觀光資源화와 行政의 對應方案 .....	71
1. 文化祝祭의 觀光資源化 方案 .....	71
1) 無形文化財의 公演을  통한 觀光資源化 .....	71
2) 傳統祝祭의 再現을  통한 觀光資源化 .....	78
3) 現代祝祭의 特長化를  통한 觀光資源化 .....	83
4) 새로운 祝祭 開發을  통한 觀光資源化 .....	87
2. 文化祝祭의 觀光資源化를 爲한 行政의 對應方案 .....	88
1) 文化祝祭의 綜合的 體系化 .....	90

2) 無形 文化資源의 發掘 傳承 .....	93
3) 文化藝術 主體의 育成 .....	96
4) 行政의 文化媒介 機能 強化 .....	99
5) 文化祝祭의 支援體制 確立 .....	102
VI. 要約 및 結論 .....	106
參 考 文 獻 .....	109
英 文 要 約 .....	113



## 表 目 次

〈表 1〉 日本의 自治團體 公共 이벤트 現況 .....	28
〈表 2〉 韓國의 鄉土 文化祝祭 現況 .....	33
〈表 3-1〉 開催 횟수·年度別 新生 鄉土 文化祝祭 數 .....	38
〈表 3-2〉 道別 鄉土 文化祝祭 平均 年輪 .....	39
〈表 4〉 鄉土 文化祝祭 開催 時期 .....	40
〈表 5〉 鄉土 文化祝祭 開催 空間 現況 .....	41
〈表 6〉 '94 韓國 訪問의 해 觀光文化祝祭 .....	43
〈表 7〉 濟州道 自然·레저 觀光資源 現況 .....	46
〈表 8〉 濟州道 國家 指定 文化財 現況 .....	47
〈表 9〉 濟州道 指定 文化財 現況 .....	47
〈表 10〉 濟州道 觀光客 趨勢 및 觀光輸入 現況 .....	49
〈表 11〉 來道 觀光客 分類 .....	50
〈表 12〉 外國人 國籍別 來道 現況 .....	50
〈表 13〉 濟州道 民謠 分類 現況 .....	62
〈表 14〉 濟州道 無形文化財 現況 .....	65
〈表 15〉 全國 民俗藝術競演大會 出演 現況 .....	66
〈表 16〉 '95 濟州道 觀光 文化祝祭 計劃 .....	68
〈表 17〉 濟州道 無形文化財 技·藝能 保有者 및 保有團體 現況 .....	96
〈表 18〉 濟州道 文化藝術 團體 現況 .....	98
〈表 19〉 濟州道 觀光 文化 機構表 .....	99
〈表 20〉 市·郡 觀光 文化 機構表 .....	100

---

## 그림 목次

〈그림 1〉 관광의 정의와 준거기준(종합) .....	18
〈그림 2〉 관광자원의 구성과 유형 .....	22
〈그림 3〉 문화예술의 생산·유통·소비 관계도 .....	90
〈그림 4〉 문화축제 지원 체계도 .....	104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

문화는, 「지식, 신앙,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複合 總體」<sup>1)</sup>로서,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 인간집단의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와 더불어 인간들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술이다. 예술은, 「감각이나 상상력을 통한 우리의 지각을 전제로 창조된 하나의 표현적 형식이며, 그것이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sup>2)</sup>이다. 한편 이러한 문화 예술적 요소들이 인간의 집단 생활을 토대로 구조적인 통일성을 지니면서 계승 발전되어 온 것이 인류의 문화사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지방문화란 일정지역의 구성원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살아 온 그들 생활방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문화는 제주도라는 섬의 공간속에서 제주 사람들이 영위해 온 생활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주문화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격랑심하게 흘러간 역사를 배경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특성은 도서문화성, 서민문화성, 고유문화성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제주 문화는 제주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문화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실정에 놓여 있다.<sup>3)</sup> 왜냐하면 오늘날의 관광은 인간의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하면서 경제, 사회, 환경은 물론 문화 예술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1) 韓相福, 「文化人類學 概論」,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p. 65.

2) Susamme K. Langer, 이승훈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고려원, 1987, p. 27.

3) 제주도는 '95년 3월 「문화주도의 제주 관광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때문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제주관광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350만명의 관광객이 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관광은 수려한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제주도는 각종 민속놀이와 민요 및 문화재 등 독특하고 지역적 특성이 짙은 전통 문화자원들이 곳곳에 산재하여 있고 각종 축제들이 펼쳐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 효율적인 개발과 정책지원이 미흡하여 급증하는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선진 각국의 관광 현상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정적인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여 즐기는 동적인 관광형태로 바뀌었고, 관광 형태가 자연 탐방에서 심미적 문화관광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자원의 특성과 장점을 개발함과 아울러 각종 예술행사와 이벤트를 활성화하여 관광과 접목시켜 나가는 일은 최우선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인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아울러 국내외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적 경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관광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독특하고 개성있는 제주문화 축제들을 관광과 접목시켜 고급 관광자원으로 연출함으로써, 문화주도의 선진국형 관광으로 전환시키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행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데 두었다.

##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문화관광의 유형은 그 폭이 대단히 넓은 편이다. 문화관광의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미국의 「옥외레크레이션 자문위원회」의 경우, 「문화관광의 배경요소

로 역사적 사건의 발생지 및 유적지가 주요 문화관광의 대상이 된다.<sup>4)</sup>고 하였다. 자파리(J.Jafari) 교수는, 「문화관광의 배경요소로 독특한 축제행사와 특정 지역의 종교, 전통과 예술, 역사적 기념물 등을 꼽고 있으며,<sup>5)</sup> 매킨토쉬(Robert W. McIntosh) 교수는, 「문화관광의 요소로 지역 국민의 호의적 태도, 친근성, 예술, 역사, 음악, 연극, 무용, 쇼핑 등이 문화관광의 대상<sup>6)</sup>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문화관광이란, 결국 다른 지역이나 타국의 생활양식과 전통적 행동양식에 접하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관광의 효과는 경제적 효과에 앞서 지역 주민간에 그리고 국가 간에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화교류의 기회를 증대시킴에 따라 상호간의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관광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거리감 없는 세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문화관광의 긍정적 영향은, 경제적으로는 외화획득과 소득증대, 고용창출과 경제구조의 개선을 들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정보 교환의 촉진과 상호이해의 증진, 새로운 사조의 도입과 문화교류의 활성화, 전통문화의 재발견과 새로운 예술 문화의 진흥을 꼽을 수 있다.

결국 문화관광은 어떤 하나의 단순한 유형이라는 측면보다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세계의 전반을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의식의 토대가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제주도의 무형문화재와 전통문화축제, 현대예술축제, 새로운 축제개발이 문화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자원화 하는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문화관광의 필요

4) Outdoor Recreation Resources Review Commission, *Outdoor Recreation for America*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1962), pp. 95~100.

5) Jafar. Jafari, "The Tourism Market Basket of Good and Servic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 No. 3. 1974. p 77.

6) Robert W. McIntosh, C. R. Goeldner, *Tourism :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5th ed. (N. Y. : John Wiley & Sons, Inc., 1986), pp.200~219.

성 및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화축제, 문화관광 등에 관련된 국내외의 서적과 논문, 기관과 언론 등에서 조사 발표된 자료를 이용하는 문헌분석 방법, 실제적인 문화관광을 다룬 사례연구의 방법을 병행하였다.

내용면에서는 첫째, 연구의 이론적 고찰로서 전통문화와 축제,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자원의 의의를 살펴 보았고, 둘째, 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의 사례로서 외국의 문화 예술축제와 한국의 문화축제를 고찰했으며, 셋째 제주도의 문화관광과 축제, 문화축제 기반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넷째, 제주도의 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방안과 이에 따른 행정의 대응을 모색한 다음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 II. 研究의 理論的 背景

### 1. 傳統文化的 意義

#### 1) 傳統文化的 概念

전통문화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전통'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흔히 전통은 '근대'라는 개념과 대비를 이루면서 논의되어 왔다. 이 두 개념에 대해서는 크게 단절과 연속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단절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근대화로 인한 구조적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행위규범을 요구하며, 따라서 이는 기존의 사회적 행위와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즉 전통적인 행위규범은 근대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며, 따라서 전통은 마땅히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7)</sup>

한편, 전통과 근대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으로 보는 주장이 있다. 이는 전통이 과거에도 근대적인 요소가 존재하였으며, 근대라고 불리우는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sup>8)</sup>

전통과 근대를 연속으로 보는 입장은 다시 보수적인 입장과 진보적인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수적인 입장은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의 소극적 수용적인 수용을 강조하는 보존적 전승론으로서 전통으로의 맹목적인 복고나 회귀는 아니더라도 전통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진보적인 입장은 전통문화의 적극적, 능동적인 재해석, 재창조를 강조하는 창조적 발전론으로서 전통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와 미래의 감정, 사고, 행동, 생활에 알맞는 문화적 주체성을 개발하려는 입장이다. 한 문화의

7) Edward Shils, Tra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p. 1.

8) 趙東一, "傳統의 退化와 繼承의 方向", 「創作과 批評」3, 1996 여름, pp. 357~359.

주체자 또는 담당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보존적 전승론은 그 주체가 소위 기성세대에 의존하게 마련이고, 창조적 발전론은 그 기성세대의 뒤를 이어가게 될 후속세대 즉 청소년층에 의해서 주도될 것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다.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다른 하나의 축은 전통과 관습을 대비해 보는 것이다. 임희섭은 전통을 '문화적 전통'과 '전통사회의 문화'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전통사회의 문화는 현대에서의 적합성을 이미 상실한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구조에서만 적합했던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전통이다. 반면 문화적 전통은 현대에서도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과거로부터의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전통이다. 따라서 과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사회적 상황에서의 지배적 관행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 역사적 배경과 연속성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분석상 보다 유리하다.<sup>9)</sup>

전통과 근대의 연속 또는 단절이란 문제는 한 사회의 구성원 집단을 염두에 두더라도 연속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자연법칙과 생물학적 추이에 의해서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성세대는 항상 후속세대에 의하여 대체되며, 그 대체의 과정은 연속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혼하지 않게 단절의 논리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한 사회의 논리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적 발전론이라는 시각 위에서 청소년에게 그 논리의 주체라는 의식을 배양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전통문화는 관습이나 '전통사회의 문화'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적합성을 갖고 있는 문화적 유산이다. 전통문화는 현대문화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문화는 현대와 미래의 문화창조를 풍요롭게 해주는 바탕, 즉 새로운 문화창조의 원동력이며, 현대사회와 미래사회에 알맞는 문화의 발전방향을 정립하는 기초가 된다.

---

9) 林嬉燮, 「社會變動과 價値觀」, 정음사, 1986, pp. 266~267.

이와같은 의미에서 전통문화의 성격을 다음의 3가지로 들 수 있다.<sup>10)</sup> 첫째, 전통문화는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긍정적인 것, 좋은 것, 바람직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적용범위상 다양한 차원의 전통문화를 논할 수 있다. 즉 지역적, 계층적, 시대적 구분이 가능하다. 셋째, 전통문화도 가변성을 갖는다.

## 2) 無形文化財의 定義와 傳承 意義

문화재는 전통문화의 대표적 표상이다.

문화재는 문화적 양식과 요소를 바탕으로 창출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문화의 유산」<sup>11)</sup>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재의 개념은 광의적이어서 그 대상이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협의의 문화상 가치가 있는 것, 즉 역사상·학술상·종교상·관상상·기타 생활문화의 추이를 이해할 수 있는 실체로서 민족 전체의 정신적 작위에 의한 가치가 부여된 것을 뜻한다.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법에서도 이러한 협의의 뜻으로 문화재를 정의하고 있다.

문화재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 네 분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전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보물과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 유형문화재가 있다.

또한 기념물이라 함은 패총·성지·궁지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

1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전통문화의 자주적 현대화 방안」, 1989, p. 23.

11) 文化財 管理局, 「文化財 保存」, 문화재관리국, 1984, p. 171.

치가 큰 것과 경승지로서 예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동물·식물·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적·명승·천연기념물과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 기념물이 있다.

민속자료란, 의식주·생업·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을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민속자료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 민속자료로 구분한다.<sup>12)</sup>

이러한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 등이 모두 형체가 있는 것인데 비해 무형문화재는 글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는데 그 특성이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의 무형문화재란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민속놀이 등 전통생활 속에서 전래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기·예능을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 무형문화재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 무형문화재가 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은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학술상·예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을 말한다.

연극은 인형극과 가면극, 음악은 재례악·대취타·가곡·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산조·농악·잡가·무악·범패, 무용은 의식무·정재무·탈춤·민속무 등이 된다. 공예기술의 지정대상은 도자공예·마미공예·금속공예·화각공예·장신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피혁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예·옥석공예·자수공예·복식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 등이다. 이외에도 의식과 놀이·무예·음식제조 등과 이러한 예능의 성립이나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 또는 그 용구 등의 제작과 수리 등의 기술이 지정 대상이

12) 文化財 管理局, 「文化財 管理使覽」, 문화재관리국, 1985, pp. 5~6.

된다.<sup>13)</sup>

이와 같은 무형의 문화적 소산이란 인간의 지능과 예지로서 정신과 육체활동의 결과 이룩된 형체가 남아있지 않은 현상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간에 의하여 어떠한 작위가 나타나거나 이루어 질 때 형성되는 기술 내지 예술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각적·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시간적·공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음악을 연주할 때나 아름다운 춤을 출 때 나타나는 예능이나 탑과 같은 훌륭한 건조물을 건립할 때 가하게 되는 인간의 기술이나 기법 등을 형성하는 기능은 그 자체가 형체가 없는 것으로 기·예능을 지닌 인간이 사라지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재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예능의 현상이며 옛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가치가 큰 것이고, 형체가 있는 유형문화재의 대칭이 되는 말이다. 이와 같은 무형문화재는 커다란 문화적 가치를 지니며 또한 이를 보존하여 지정 보존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져 문화적 손실을 가져오는 중요성이 인정되는 대상들이다.<sup>14)</sup> 때문에 국가나 시·도에서는 문화재 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기능이나 예능을 보유한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하여 그 기·예능을 함께 보호하고 전승시키고 있는 것이다.

## 2. 文化祝祭의 定義와 內容 分類

### 1) 祝祭의 定義와 機能

어원적으로 말할 때 축제, 즉 festival은 라틴어의 festum에서 나왔다. 라틴어의 festum은 일반적인 기쁨(public joy), 환락(merriment), 흥청망청 떠들기(rev-

13) 文化財 管理局, 「文化財」 17號, 文化財관리국, 1984, pp. 229~230.

14) 金宅圭, “傳統文化的 繼承과 無形文化財의 保存”, 「文化財保存」, 文化財 관리국, 1984, pp. 75~76.

elry)라는 뜻을 가진 festum과 신들을 위한 일(과업)로부터의 완고성(abstinence)이라는 뜻을 가진 feria에서 나왔다.<sup>15)</sup>

현대 영어에서의 축제의 뜻은 의식 속의 신성적 또는 세속적인 시간, 유명한 인물과 사건을 기념하는 연례행사나 중요 생산물의 수확에 대한 연례행사, 일련의 미술작품의 전시, 농산물 시장, 모든 환락, 주홍(연회적 기분)이나 기쁨 등을 뜻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 있어서도 놀이(pflegen)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양식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 문화권도 있다. 이 놀이와 의식의 관계를 특별히 증명하는 말로써 중세 네덜란드어의 결혼(huweleec)이라는 말과 축제(festelic), 싸움(vechtelic, 고대 프러시아어로는 fyuchtleek) 등의 말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스칸디나비아어의 일반적인 놀이를 뜻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축제는 어떤 성격을 어원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자기 조상을 경건하게 모시는 관습이 뿌리 깊다. 그들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조석으로 상식을 올렸다. '축'자는 경축의 뜻만이 아니라 기원의 뜻이 더 크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사의 축문이라든가 축복, 축수, 축하, 축도와 같은 말의 '축'자는 경하와 경축의 뜻보다는 신에게 빌고 원한다는 의식의 뜻이 더 강하다. 어원적으로 보아도 한국적 축제는 신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축'을 경하의 뜻으로 쓴 것은 일본 문화의 영향도 있다. 서구의 festival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제의의 뜻을 잘못 이해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효행의 몸가짐을 훈계하는 말로 부모가 병환이면 우하고 상을 당하면 애하고, 제를 행할 때는 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모름지기 엄숙해야 할 제가 무슨 제, 무슨 제라는 용어로 함부로 쓰이고 있음은 일본어식이나

---

15) Alessandro Falassi, "Festival: Definition and Morphology", *Time out of Time*, Univ. of New Mexico Press, 1987, pp. 1~2.

서구 기독교적 가면무도회, 연회, 경기처럼 여흥 위주의 축제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축제는 집단성·현장성·신명성·가장성을 드러낸다. 몇 사람이나 가족들의 놀이를 축제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집단적인 참여에 의해 성취되며 아울러 강한 현장적 성격을 지닌다. 모든 행위는 현장의 상황에 따라 그 자리에서 직접 이루어진다. 축제는 일회적인 것인 동시에 전승되어 간다. 참여자들의 가장된 행위와 신명이 하나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축제는 완성되어 간다. 축제야말로 현장을 통해 살아나는 뜻있는 놀이요 창조적인 의식이요 민중들의 즐거운 몸짓이다.

지금까지 축제의 기능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축제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측면은 참여의 태도와 정조를 강화시키며, 욕구불만에 대한 보상이 되고, 불안해소나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통합의 역할이나 개인과 집단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기능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종교·문화적 면에서는 신화의 재현을 통한 원형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를 체득시키며, 개인과 사회와 우주와의 관련성을 새롭게 확인시키는 한편, 문화의 위기를 주목하고 붕괴를 막는 기능이 있음이 논의되기도 하였다.<sup>16)</sup>

## 2) 祝祭의 形成과 內容

축제의 집단성과 현장성 및 신명성과 가장성은 이상에서 언급한 시간과 공간과 어울려 나름대로 판을 형성시켰으며, 그 내용인 제의와 연행물을 창출해 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전승시켜 왔다. 예컨대 굿판·민속놀이판(광의의 놀이문화에 대한 하위개념으로서의 놀이)·탈판·소리판·춤판 등에서 판은 각기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기도 하고, 큰 잔치나 대동적인 형태로서 복합적인 판으로 어우러지기도 한다.

16) 徐淵昊, "民族文化와 祝祭文化", 「한국의 축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pp. 9~10.

일반적으로 판은 어떤 일이 벌어진 자리, 혹은 벌어지는 자리로서의 어떤 행위가 전제되는 공간 개념이며, 동시에 「판판」 「막판」과 같이 행위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판놀이·판소리·판굿 등에서 판은 「마당」과 같은 공간의 의미가 있으나 마당이 자연적이고 임의적인 성격이 짙은 데 비하여, 판은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성격이 짙게 나타난다.

마당과 판은 같은 공간개념을 지니고 있으나 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구성적이고 집약적인 행동 의도가 보다 강하게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마당은 바람직한 판을 지향하는 성향이 있고, 판은 그 의미를 보다 넓은 마당으로 확장하려는 성향이 있으므로, 양자의 관계는 서로 보완하는 발전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축제는 이러한 「판」의 형성을 통하여 구현된다. 축제로서의 굿판에는 사제자로서의 巫와 巫儀를 필요로 하는 기원자(국가단위·단체·개인), 그리고 무의를 돕는 보조자(반주자·예능인)와 구경꾼 등이 참여하여 하나의 새로운 판을 형성하게 된다.<sup>17)</sup>

제의 내지는 연행물의 하나로서 굿은 지역적으로 다양한 유형과 종류가 분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랜 전승력을 지녀왔다. 한국의 기층문화로서 샤마니즘과 무속적인 민간신앙은 전승 축제 발현의 원형적인 모습과 본질적인 요소로서 대표성을 지닌다. 종교적인 제의로서의 굿과 굿판의 다양성은 그 자체가 옛날부터 축제양식의 다양한 분화를 시사해 준다.

축제의 전승은 구비전승·행위전승·현장전승·집단전승·환경전승 체계에 의존한다. 입에서 입으로, 몸짓에서 몸짓으로, 직접 현장에서 다수의 참여자를 통해 전승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여건이나 생산양식·생활방식·상황에 따라 전승되어 가는 것이다.

축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의·연회·놀이로 표현된다. 제의는 축제의 목적이

---

17) 任東權外, 「民俗論」, 集文堂, 1989, pp. 19~20.

나 중심적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서, 참가자들의 꿈이나 소망·욕망이나 기원 등을 포괄하는 종교양식·제사의례로 체계화 되었다. 인간은 진보적인 희망을 지닌 유기체다. 진보적인 희망이야말로 축제 발상의 근원이다.

다수확과 풍요, 행운, 안전, 행복, 치병, 죽은 자의 천도와 위업계승, 혈통의 보전 등을 위해서 제의는 발상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구체화·실천화 시키기 위하여 주술적이고 모의적이고 가장적인 행위가 제의의 방식을 형성시키게 되었다. 제의적 행위는 그 자체가 기원의 표상이자 참가자들에게는 오락이며, 실제로는 연희나 놀이로 형식화 되기에 이르렀다.<sup>18)</sup>

巫가 중심이 되는 곳에서 巫儀 行爲는 바로 제의적 행위의 원형성을 보인다. 무의 굿은 의례이자 연희이자 놀이다. 신을 불러들이고, 신을 즐겁게 하며, 신과 대화하거나 기원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 신의 말씀을 전달하고 나서 신의 돌아감을 배움하는 것이 굿의 의례인데, 실제로 이러한 과정은 열두거리라는 주술적이고 모의적이고 가장적인 연희(굿놀이)로 진행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그러한 연희과정에 적극 개입하거나 동화되고, 상대적으로는 무는 참가자들의 심성 가운데로 적극 파고들어서 굿 전체가 놀이화 된다.<sup>19)</sup>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민속놀이에도 제의적인 행위는 충만되어 있다. 전투에서의 승전을 위한 모의적인 놀이(안동차전놀이·양산쇠머리대기·고싸움놀이·가마싸움·편싸움)가 있는가 하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모의적인 놀이(영산줄다리기·씨름·장치기)도 있다. 음악과 춤과 몸짓으로 표현되는 가장적인 놀이(강강술래·원놀이·눗다리밟기·각종 동물놀이) 등 많은 종류가 전승된다. 민속놀이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속신적인 기원을 포함한 종교성이 내포되어 있다.

놀이의 담당층은 서민인데, 그 서민이야말로 생산과 노동의 주체이기에 그들의 일과 생활양식·환경은 응당 놀이의 성격을 결정짓고 창출해 내게 되었던

18) 林在海, 「韓國民俗과 오늘의 文化」, 지식산업사, 1994, pp. 279~285.

19) 趙興胤, “굿관의 의미”, 「한국의 축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pp. 15~19.

것이다. 아득한 옛날의 수렵채취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장구한 시대에 걸쳐 농업·어업생산이 경제의 중심이 되어 왔기에 민속놀이는 자연 그에 걸맞는 축제의 양식으로 정립·전승되기에 이른 것이다.<sup>20)</sup>

농악대가 중심이 되는 곳에서 농악대의 행위는 연회적인 측면에서 보다 예능화된 모습을 보인다. 풍물·풍장·사물 등으로 불리어 온 농악은 두드리는 악기인 징·꽁과리·장고·북(사물)이 중심을 이루는데, 애초에는 소리를 내고 동작을 짓기 위한 원시적인 단순한 행위로부터 축제의 음악으로 편성되면서 점차 세련되고 고도화된 음악성과 연기를 갖추게 된 것이다.

신의 내림을 받고, 신을 즐겁게 하여, 신에게 기원할 뿐 아니라 신의 뜻을 운동리의 가가호호에 전이시키고 나서 판놀이를 벌이는 것이 농악대 굿의 의례인데, 실제로 이러한 과정은 열두거리놀이(십이차)·잡색놀이 등 연회성이 충만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주술적이며 모의적이고 가장적인 행위 즉 제의적인 행위는 각종의 연회와 놀이를 창출해 내고 예능화 되었으며, 오늘날 예술의 정신적·기술적 토대가 되었다. 제의적인 행위가 예능화되는 실례는 춤판·소리판·탈판에서 명료하게 찾아볼 수 있다. 축제 참가자의 한 사람이었던 자연인이 예능인(광대·배우)으로 전환되고, 다른 참가자들은 관중으로 바뀌며, 축제에서 연행되던 짓과 소리는 예능(연회)으로 발전되었다. 주술은 예술로, 모의는 예술적인 상상력으로, 가장은 드라마의 세계관으로 확장·확대된 것이다. 집단적인 몸짓은 개인적인 춤으로, 집단적인 소리는 개인적인 음악으로, 집단적인 가장은 개인적인 연극으로 예능화·예술화되기에 이르렀다.<sup>21)</sup>

춤판·소리판·탈판을 축제의 개념으로 포괄시켜야 하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근거한다. 이러한 ‘판’들은 모두가 축제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예능의

20) 崔 喆, “축제로서의 놀이판의 의미”, 『한국의 축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pp. 21~26.

21) 鄭炳浩, “춤판의 구조와 특징” 『한국의 축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pp. 33~38.

독자적인 발전과정이었으나 분화이자 현대적인 전개의 한 양상이라 하겠다. 논리를 비약시키자면, 현대의 모든 예술, 모든 제도, 모든 집단행동은 축제의 산물인 동시에 그 발전, 그 변이, 그 확장의 현상과 양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민족마다 국가마다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반축제·비축제·탈축제적인 방향으로 전개된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날 축제정신의 부재와 결핍을 아쉬워하고 축제양식의 재현과 창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역설적인 반동이다. 축제에로의 회귀야말로 참다운 인간화의 길일 것이다.

### 3) 祝祭의 分類

놀이문화의 핵이요 총화인 축제는 몇 가지 측면에서 분류될 수 있다.<sup>22)</sup>

첫째는 시기에 의한 분류이다. 매년 혹은 몇 해를 일정한 주기로 하여 이루어지는 축제가 이에 해당된다.(세시놀이, 연중행사, 별신제)

둘째는 지역에 의한 분류이다. 축제가 전승되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그 독립성을 위주로 한다.(강릉단오제, 은산별신제, 하회별신굿놀이)

셋째는 담당층에 의한 분류이다. 축제에 참가하는 주민들의 성향에 따른다.(농민, 어민, 도시민)

넷째는 목적에 따른 분류이다. 풍농·풍어·사령천도·조상숭배·홍행·여흥 등 여러 가지 목적에 따른다.(치병굿, 진오귀굿, 풍농굿, 풍어제)

다섯째는 제의형식에 따른 분류이다. 무가 중심이 되고 농악대가 부수되는 것, 농악대가 중심되고 무가 부수되는 것, 제주가 중심이 되고 농악대가 부수되는 것, 절충식 등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부락굿, 부락제, 지신밟기)

여섯째 성에 따른 분류이다. 남성과 여성에 따라 각기 특징적인 축제에 분화되기도 하였다.(강강술래, 돌팔매싸움, 해녀놀이)

22) 李相日, 「굿과 놀이」, 문음사, 1981, p. 149.

일곱째로 연행양식에 따른 분류이다. 종교의례적인 것, 민속놀이적인 것, 공연적인 것, 절충형인 여러 가지 양식이 혼재하고 있다.(한장군놀이, 밀양백중놀이, 소놀이굿)

축제의 본격적인 연구는 이러한 분류를 토대로 진척되어야 함이 당연한 논리다. 이러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문헌적이고 현장전승적인 자료의 광범위한 수집과 객관적인 기술이 전제된다. 그리고 축제는 문화관광과 접목시켜 연구함으로써 본래의 매력성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축제의 연구는 우리에게 아직 미개척분야로 남아 있다.

### 3. 文化觀光의 類型과 構成

#### 1) 觀光의 定義

관광에 대한 정의는 그 동안 수많은 학자나 기관 등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관광현상의 모든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정의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그 동안 제시되어온 여러 가지 정의를 경영·경제학적 정의, 단일학문적 정의, 현상적 정의, 체계·분석적 정의로 대별하여 살펴보고 그 의미를 종합하고자 한다.

경영·경제적인 정의의 대표적 학자는 맥킨토쉬(Robert W. McIntosh)로서 그는 관광을 “여행자를 유인하고 수송하고 숙박시키며, 그리고 관광객의 요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과학이며 사업”<sup>23)</sup> 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살펴보면 관광의 주체를 사업으로 보면서 객체인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에서 관광의 본질을 찾는다.

단일학문적 정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고헨(E. Cohen)으로서, 그는 관광객을 7

---

23) Robert W. McIntosh, C. R. Goeldner. *Tourism : Principles Practices, Practices Philosophies*, 5th ed.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86), p. 4.

가지의 인자, 즉 자발성 여부, 여행기간, 여행방향, 여행거리, 여행빈도, 그리고 일반적 목적과 특정적 목적을 준거기준으로 삼아 관광을 “일시적이며 자발적 여행으로써 비교적 먼, 그리고 비거주적 귀환여행 동안 신기함과 변화에 의한 즐거움을 기대하며 여행하는 사람”<sup>24)</sup> 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광에 관한 현상적 정의는 관광객이 여행을 출발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events)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관광객과 그들을 접대하는 현지주민(on-site residents)간의 접촉(interaction)이 강조되고 있다.

우선 1934년에 열린 「관광에 관한 유엔(UN)회의」에서 채택된 정의를 살펴 보면, 관광객의 비경제적 여행목적을 강조하며 관광을 “소득과 관계없이 영구히 정주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이동하여 여행 기간 동안 비거주자의 여행으로부터 생기는 현상과 관계의 총체”<sup>25)</sup> 라고 정의를 내렸다.

관광에 관한 체계·분석적 정의의 예는 자파라(Jafar. Jafari)의 정의로서, 그는 관광을 “일상권을 떠난 관광자와 그의 요구에 상응하는 산업, 그리고 그 양자가 수용지역의 경제적 또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sup>26)</sup> 이라고 하며, 관광을 관광객과 관광산업, 그리고 관광영향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내용을 요약하여 체계화하면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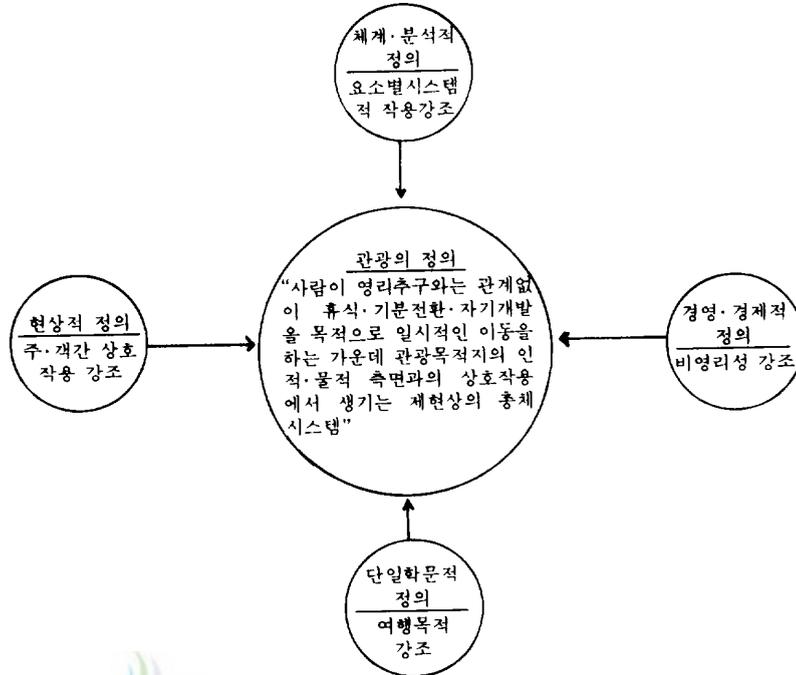
24) E. Cohen, “Who is a Tourist? : A Conceptual Calification”, *The Sociological Review*, No.2, 1974. 527~555.

25) Neil Leper, “The Framework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6. No. 4, 1979, p. 391.

26) Jafar Jafari “Editor’s Pag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5. No, Special, 1977, p. 8.

〈그림. 1〉

관광의 정의와 준거기준(종합)



## 2) 文化觀光의 類型

현대사회에서 관광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문화관광(Cultural Tourism)은 그 뜻이 매우 다양하다. 사전적 의미로서 문화관광은 유적, 유물, 전통공예, 예술 등이 보존되거나 스며있는 지역 또는 사람의 풍요로왔던 과거에 초점을 두고 관광하는 행위이다. 계획적인 전략으로서 문화관광은 지방과 국가복지, 기업체 그리고 환경요건과 관광객의 욕구와 균형을 맞추면서, 그 지방주민과 방문객을 위해 풍요로운 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시도되기도 한다.

세계관광기구(WTO)에서는 문화관광은 유적지와 기념물을 찾아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예로는 유럽의 성당, 이집트의 피라미드,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 고대의 궁궐을 방문하는 것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가장 일반적인 문화관광에 대한 표현이며, 최근의 새로운 문화

관광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하는데 바탕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85년 세계 관광기구의 연구논문에서는 문화관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이란 협의로는 연구여행(탐구여행), 예술문화여행, 축제 및 기타 문화행사 참여, 유적지 및 기념비 방문, 자연·민속·예술 연구여행, 성지순례 등 본질적으로 문화적 동기에 의한 인간들의 이동이고, 광의의 문화관광은 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경험·만남을 증가시키는 등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의에서 볼 때 후자는 관광의 인간적 가치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전자는 유적지나 기념비에 관한 방문과 더불어 여러 가지 활동을 포함하고, 특히 연예 예술의 범위까지도 언급하고 있다.<sup>27)</sup>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문화관광이란 결국 타국이나 타지역의 생활양식이나 전통적 행동양식에 접하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같은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이 경제적 효과에 앞서 지역주민간에 그리고 국가간에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화교류의 기회를 증대시킴에 따라서 상호간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더불어 관광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거리감 없는 세계”(a shrinking world)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 3) 文化觀光資源의 構成과 特徵

관광은 관광자원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관광여행의 유인이 되는 자연 또는 인문적인 매력물을 일반적으로 관광자원이라고 한다. 관광자원(Resources for tourists)이라고 하는 말은, 1920년대 이래로 관용되어 왔는데, 이는 「관광 여행자의 활동 근원이 되는 제현상」<sup>28)</sup>을 가리킨다.

일본의 경우 津田昇은, 「관광자원이란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이 그 관광 동

27) 韓國文化藝術振興院 文化發展研究所, 「文化觀光에 關한 基礎的 研究」, 1989, pp. 13~14.

28) 安鍾允 編著, 「觀光用語事典」, 法文社, 1985, pp. 149~150.

기 내지 관광의욕의 목적물로 삼는 관광대상」<sup>29)</sup>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小俗達男은, 「관광자원이란, 관광상의 제효과를 창출하는 원천으로서 개발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상」<sup>30)</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교통공사는, 「관광자원은, 관광객이 그것을 이용하여도 소모되지 않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sup>31)</sup>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安鍾允은, 「관광자원은, 관광대상이 될 수 있는 소재로서 이것을 개발함으로써 관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sup>32)</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金正培·鄭承諡은, 「관광자원은,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 동기나 의욕을 충족시키고, 나아가서는 관광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목적물로서 유형·무형의 관광 대상」<sup>33)</sup>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李 根은, 「관광자원이란 인간의 욕구와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연적·인문적 대상의 총체로서 매력성과 자력성을 지닌 표재적 자원」<sup>34)</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를 종합한다면, 「관광자원은 관광객의 관광행동을 일으키고, 관광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목적물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문화관광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관광지 또는 자원의 유형분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 옥외레크레이션 자문평가위원회(Outdoor Recreation Review Commission)는, 레크레이션 자원을 물리적 자원특성, 개발과 관리의 실태, 이용정도, 예상활동양식 등에 근거하여 고밀도 위락지역, 일반 옥외레크레이션지역, 자연환경지역, 독특한 자연지역, 원시지역, 역사문화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관광유형에 속하는 문화관광 활동지역은, 역사문화지역(Historic & Cultural Sites)인데 이곳은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장소로서 역사적 사건

29) 津田昇, 「國際觀光論」, 東京 : 東洋經濟新聞社, 1969. p. 44.

30) 小谷達男, 「觀光開發 以け(こつの 方向性)」, 第2回 韓·日觀光學會 共同研究會 報告要指, 東京, 1984. p. 66.

31) 日本交通公社, 「觀光用語事典」, 東京 : 日本交通公社, 1973, p. 55.

32) 安鍾允, 「觀光學概論」, 創文閣, 1972, pp. 77~78.

33) 金正培·鄭承諡, 「韓國觀光資源論」, 瑩雪出版社, 1990. p. 16.

34) 李 根, 「觀光資源論」, 學文社, 1990, p. 43.

의 발생지나 유적지 등이 해당된다.<sup>35)</sup>

자파리(Jafar·Jafari) 교수는, 3가지 유형의 관광배경요소로 구분하여, 자연적 관광배경요소로는 수자원, 기후조건, 숲, 산과 그 밖의 자연자원, 사회·문화적 관광배경요소로는, 어느 지역의 독특한 축제와 행사, 특정 지역의 역사, 종교, 전통, 예술 등, 인공적 관광배경요소로는 역사적 건물, 기념물, 종교사원 그리고 전통적 또는 현대적 건축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sup>36)</sup>

맥킨트쉬(Robert W. McIntosh)는 관광공급요소를 구성하는 관광자원의 유형을 크게 자연 자원과 환대·문화자원으로 대별하고, 환대·문화자원(hospitalit·cultur-al resources)은 관광객을 유인하게 되는 일정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 관광객에 대한 지역주민의 호의적인 태도, 친근성, 그리고 예술·문학·역사·음악·극예술·무용·쇼핑 등으로 분류하였다.<sup>37)</sup>

이상에서 살펴본 관광지 또는 자원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문화관광을 구성하는 자원은 사회·문화적 요인(socio-cultural factors)으로서 인간의 비영리적 활동을 통해서만 그 특성이 감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과 국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세시풍속·민속·음악·무용·종교·언어·생활양식 등의 무형적 제반 현상으로 구성된 인적 요인(human factors)이 있다. 또한 각종 건축물, 유적 사적 및 사적지 각종 지정관광지·유원지·공원·박물관·영화관·미술관 등의 구조물이나 시설물에서부터 음식물, 의상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관광의 유형은, 이러한 각각의 요인 및 요소들을 통해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관광형태를 말하며, 이들 요인 및 요소의 특징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대상인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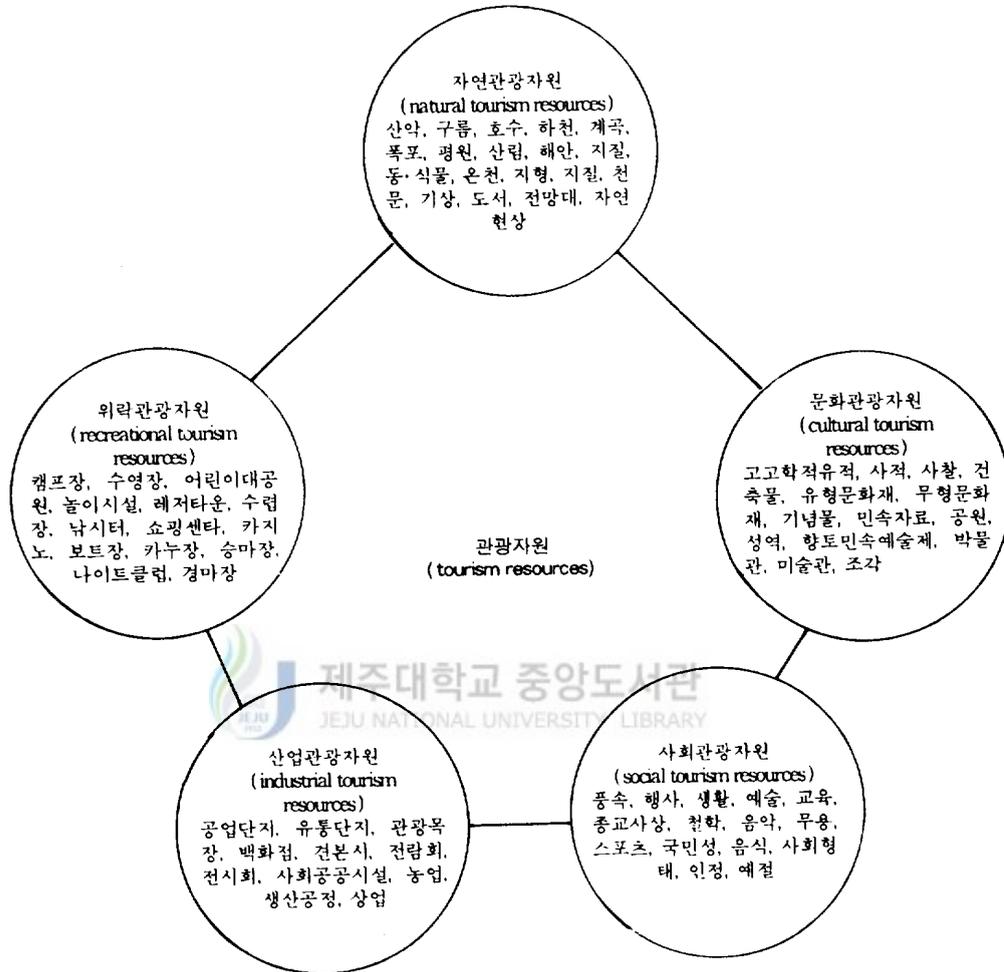
35) Outdoor Recreation Resources Review Commission, *Outdoor Recreation for America*, Wastington D.C. :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1962. p. 95~100.

36) Japar Jafari, "The Tourism Market Basket of Good and Servic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 No. 3. 1974. p. 77.

37) Robert W. McIntosh, *ibid*, pp. 200~219.

<그림. 2>

관광자원의 구성과 유형



### III. 文化祝祭의 觀光資源化 事例

#### 1. 外國의 文化藝術 祝祭

##### 1) 美國의 文化藝術 祝祭

다른 어떠한 목적지보다도 뉴욕시는 예술행사 및 기타의 문화자원을 관광하는 사람에게 문화관광의 의미를 알려주는 곳이다. 자유의 여신상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세계 무역센터, 국제연합본부, 록펠러센터, 브롱즈 동물원, 그리고 스테이튼 아일랜드호와 같은 현대적 문화의 상징물들은 뉴욕시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불러 일으킨다. 이외에도 현대미술 박물관, 구겐하임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브로드웨이 극장, 링컨센터,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뉴욕 필하모닉(The New York Philharmonic) 등의 많은 예술공연장 역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뉴욕의 문화 관광자원들이다.

유명한 런던극장 연극공연관광(London theater tour)과 브로드웨이 쇼 관광(Broadway show tour) 등 “I Love New York”이라는 캠페인의 성공은 미국의 관광과 예술을 연계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예술은 여행 목적지의 질과 관심을 높여주고 생명력을 불어 넣는데 주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지역도 예술활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 해주고 있다.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예술축제의 관광자원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8)</sup>

##### (1) 뉴 욕 (New York)

38) 韓國文化藝術振興院 文化發展研究所, 「문화관광에 관한 기초적 연구」, 1989. pp. 53~56.

뉴욕은 세계에서 중요한 목적지 중의 하나이며 뉴욕의 극장들은 관광객을 유인한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1984년 뉴욕은 미국에서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소비 그리고 세금 수입면에서 제1위의 지역이다.

뉴욕극장과 제작자연맹(The League of New York Theaters and Producers)의 보고에 의하면, 1983~1984년에 7만9천여명이 브로드웨이 예술행사를 참관하였는데, 이 중에서 2만2천여명의 브로드웨이 예술행사를 참관하였다.

뉴욕시의 관광 및 산업발전을 위한 마케팅은 뉴욕주 상업국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는데, 광범위한 소비-관광 마케팅에서 뉴욕시의 중요한 자산으로 옥외위락(outdoor recreation)과 우수한 문화자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 근거한 시장계획은 1977년 봄에 주 입법부에 제출되어 주 관광예산을 \$200,000에서 \$4,300,000로 증가시켰다.

1977년 여름에는 마케팅 선전 프로그램이 월즈(Wells), 리치(Rich)와 그린(Greene)에 의해 개발되어 처음으로 “나는 뉴욕을 사랑한다.(I Love New York)”라는 텔레비전 선전을 실시하였다.

그 해 여름에 뉴욕은 지난 해보다 11.8%의 관광소득이 증가되었으며, 캠페인에 소비된 \$1에 대한 세입이 \$4나 되었다.

통계청의 1977년 여행조사에 의하면 1972년에서 1977년까지 뉴욕의 방문자가 6,300,000명이 증가하여 미국의 어느 주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

처음의 캠페인은 교외의 위락활동에 역점을 두고, 1978년 봄에는 아이 러브 뉴욕 브로드웨이 일괄관광(I Love New York Broadway theater package tour) 상품을 개발하여 인기있는 브로드웨이 연극배우들을 텔레비전 상업광고에 출연시켰다. 그 결과 1977년에 비해 극장의 수입은 거의 20% 증가하였고 주변의 레스토랑 수입도 15% 증가하였다.

1980년 전국 소비자의 62%가 선전을 통해 뉴욕주를 관광 목적지로 인식하였으며 이것은 플로리다(Florida)의 65%에 이은 두번째 순위가 되었다.

1980~1981년 겨울에는 브로드웨이 쇼(Broadway Show)의 참관율이 21% 증가하여 1천 1백만매의 입장표가 판매되었다.

## (2) 발티모아(Baltimore)

축제는 규모가 적고 지역적인 것이라면 관광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메릴랜드(Maryland)주의 발티모아시에서는 도심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곳이다.

도심지와 공간을 활기 있게 하고 시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음악회(Concerts), 연극공연, 박람회, 민속축제를 1년에 700회 정도를 개최하는 행사를 치밀하게 꾸며 도심지에서 제2의 이웃관계를 싹트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발티모아는 문화와 경제가 상호 의존한다는 것을 알고 시의 개발계획에 예술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킨 예로서 이와 같은 행정부의 노력은 시의 관광발전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 (3) 시애틀(Seattle)

워싱턴 주에 있는 시애틀의 와그너(Wagner)축제는 관람 회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최초의 예술활동 중의 하나였다.

시애틀 오페라에서 1974년에 발기하여 첫 해에는 관람객의 40%를 외부지역에서 유인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6백만이나 되었다.

당시에 유나이티드 항공사(United Airlines)와 그레이 라인(Gray Line)은 최초의 축제참가 도매여행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이것은 북서태평양(The Pacific Northwest)항공 일괄상품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초기의 축제 관람객은 소득수준이 연봉 \$15,000이하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놀랄 정도로 오페라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오페라에 대한 관심은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객 거주지 주변에 오페라 극단이 있는가의 여부였으며, 축제

의 가장 큰 시장은 뉴욕, 시카고, 휴스턴이었다.

축제의 참관을 위한 여행계획은 대개 일주일 전에 계획되었으며, 이 계획에는 다양한 음식과 밴쿠버(Vancouver)축제, 시애틀 박물관 방문, 포트랜드(Portland)의 스트라우스(Strauss)의 축제 등의 행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sup>39)</sup>

#### (4) 아스펜(Aspen)

콜로라도(Colorado)주의 아스펜은 1878년의 실버붐(silver boom : 은을 캐기 위해 모임) 시기에 처음으로 성장하였다.

미국 컨테이너 회수(The Container Corporation of America)의 워터팩키(Water Paepcke)는, 애스펜 회사와 애스펜 스키회사를 설립하여 이 지역의 잠재휴양지를 개발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그의 문화생활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카고대학의 친구들과 함께 200주년 기념 괴테(Goethe)평의회(대학졸업자들의 모임)을 조직하고 음악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 축제에서 미니애폴리스 교향악단(Minneapolis Symphony)이 연주하여 대단한 성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이후 음악축제는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연례행사가 되었다.

괴테(Goethe) 평의회에 이어 국제 디자인회의(International Design Conference)와 아스펜인문연구소(Aspen Institute for Humanistic Studies)가 설립되었다.

아스펜의 3개의 연예예술기구인 아스펜 음악축제와 학교(Aspen Music Festival and School), 아스펜 발레단(Ballet Aspen), 미국 극장 스노우매스축제(the American Theater Snow-Mass Festival) 등은 이 지역의 매우 중요한 문화관광 유인물이다.

1982년 음악축제, 발레, 영화 및 연극축제는 52,975명을 유인하였는데, 전체 관람자의 65%가 외부지역에서 온 방문자였다.

---

39) 上掲書, p. 55.

모든 관람자들은 사전계획에 의해 예술행사를 참관하였으므로 연예예술은 목적지 선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축제는 900명의 학생, 225명의 교사진, 예술인 및 사원들을 유인하였고, 그들 중의 다수가 9주일 정도 체류하였다.

아스펜의 예술 관람인에 대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다수가 결혼한 여성이었고, 20~59세의 연령으로 가정수입은 연봉 \$60,000정도의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부 관광객들이 축제기간 동안에 소비한 총액은 \$4백만으로 집계되었다.<sup>40)</sup>

## 2) 日本의 文化 이벤트(Event)

이벤트란 서구에서 마케팅 용어로 쓰여왔는데, 판매촉진을 위한 특별행사(Special Event)라는 개념으로 판촉, 촉진(Promotion), 프리미엄(Premium), 엔터테인먼트로 구분한다.

그리고 더 세분하여 콘서트·패션쇼·전시회·박람회·샘플링(Sampling·견본제공), 문화축제(Festival) 등에 각각 이벤트를 붙여서 쓴다. 즉 콘서트 이벤트, 또는 이벤트 콘서트다. 대규모일 경우는 물론 빅 이벤트(Big Event)가 된다.<sup>41)</sup>

간결하게 <이벤트>라는 용어 하나를 의미있게 쓰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이벤트를 적극적인 문화형식으로 만든 나라이기도 하다. '80년대 이전에는 대체로 전통행사와 축제를 일컬었으나, '80년대 이후엔 스포츠 이벤트로부터 시작해서 음악제, 영화제, 미술관, 향토 박물관, 시민홀의 행사까지도 이벤트의 영역으로 끌어들었고, 무엇보다 그 행사의 횟수를 몰량적으로 확대했다.

40) 上掲書, p. 56

41) 文化部, 「문화가족」1, 문화부, 1990. pp. 124~125.

일본의 자치단체가 주최한 공공적 이벤트만 해도 1985년 봄·여름 사이 1,372건, 1985년 가을~1986년 겨울 1,732건, 1988년 봄·여름에 3,202건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sup>42)</sup>

이 3천여 건의 이벤트를 목적으로 분류한 자료는 <표. 1>과 같은 성향을 보여준다.

<표. 1> 일본의 자치단체 공공 이벤트 현황  
(1990년 12월 30일 현재)

내 용	개최건수(건)	비 율(%)
지역이미지, 관광선전	653	21.0
지역주민의 연대감 형성	570	18.4
과학기술, 산업진흥	406	13.1
스포츠	366	11.8
전통행사, 축제	362	11.7
교육 문화진흥	312	10.0
국제교류	237	7.6
건강, 환경문제, 의식향상 등	198	6.4
합 계	3,104건	100%

자료 : 이중한, 향토문화 이벤트와 관광연계방안. 1995. p. 7.

이렇게 물량적으로 이벤트에 매달려 있는 일본의 문화형식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이벤트를 두 개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는 <제레론> 이다. 제레는 사람들을 정념의 도가니로 만든다. 인간의 회로애락과 두려움과 희망을 모두 한데 모으고 또 이를 녹여서 새로운 삶의

42) 李重漢, "향토문화 이벤트와 관광연계 방안", 「문화주도의 제주관광 활성화」, 예총제주도지회, 1995, p. 70

목적은 공동체화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미디어 론>이다. 이벤트는 참가자에게 충격을 주는 효과가 있다. 이 충격은 새로운 정보의 창조이며 발신원이 된다. 따라서 이벤트의 충격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이며 독창적인 매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이벤트는 참여자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싶게하는 참여 충동을 일게하고, 따라서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 이끌어 오게 하는 산업적 행사가 되는 것이다.

일본의 이 발상법은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에서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일본은 무엇보다 <관광지의 재생>에 이벤트보다 더 좋은 매체가 없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관광지의 재생>이란, 일회성의 관광객이 아니라 연속해서 다시 오는 관광객이 가능토록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매력을 위해 일본의 이벤트는 온갖 상상력을 추구하고 발휘했다.

예컨대 1977년 1월 큐슈 나가사키는 <자연의 나라>를 탄생시켰다. 같은 해 10월 오이타현 우사시에는 <신 아마치국>이 생겼다. 이러한 미니독립국 선언은 현재 100개에 이르는데, 물론 국가로서의 독립이 아니라 상징적 독립이다.

하지만 여관 경영자나 상점주인, 음식점 주인들이 서로 대통령, 장관들을 나누어 맡고 관광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들이 국가운영처럼 해 나간다는 발상과 조직은 관광객을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다시 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 경우, 이러한 상징구조 자체가 또 하나의 관광이벤트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43)</sup>

---

43) 李重漢, 上掲書, pp. 7~8.

동경도 하찌오우지(八王子)시의 「은행나무 축제」는 매월 11월, 시가를 관통하는 고오슈우 도로변의 770여 그루의 은행나무에 단풍이 들 무렵, 도로변과 그 주변 시장에서 열린다. 주요한 행사로는, 은행나무 가로수를 지나는 클래식카(car)의 행진과 시골시장으로 일컫는 각지의 물산전(物産展), 음악광장이나 레크리에이션 광장, 놀이를 통한 가족적 접촉을 목표로 하는 「일가단랜드」(일가모임광장) 등이 있다. 은행나무 축제와 같은 독특한 이벤트로서는 「세키쇼 오리엔티어링」이 있다. 이것은 목제의 고풍스런 어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12개의 세키쇼(옛 검문소)에서 각 마을의 낙인을 받는 것을 취향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낙인을 모으면 추첨을 할 수 있고, 상도 탈 수 있다. 이 어음은 1개에 500엔(약4,000원)으로 팔리는데, 2만매가 판매되어 축제의 주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이것은 1979년의 제1회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은행나무 축제」의 주요행사다. 1983년에는 하찌오우지 시를 국토로 한 미니국가인 「은행나무 나라」가 건국되어, 이 나라의 패스포트(여권)라고 하는 것이 또한 500엔에 팔렸다. 이것 역시 가지고 다니면 백화점이나 유명상점에서 할인이나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외에 이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로포즈 카드」가 들어 있어서 인기가 있다.

은행나무 축제의 실행위원회에는 각양각색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시의 레크리에이션협회이다. 시내의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단체, 음악, 댄스, 야외활동 등의 애호자단체가 모여서 만들고 있는 하찌오우지시 레크리에이션협회(35단체, 9,000인)는 「레크리에이션으로 윤택한 생활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전시민을 위한 스포츠나 시민이 손수 만든 문화활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협회의 주요 이벤트는 이 은행나무 축제이다. 협회 산하의 스포츠, 문화단체는 축제현장에서 일상의 활동을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시내의 21개 대학생들도 캠퍼스를 빠져 나와 축제의

현장에서 시민과의 접촉은 갖는다.<sup>44)</sup>

### 3) 인도네시아 발리(Bali) 文化祝祭

인도네시아 관광의 하이라이트인 발리섬은 지상의 낙원, 사원의 섬, 춤의 섬, 꿈의 섬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관광지이다. 자바섬의 동쪽에 인접해 있으며 면적은 약 5,667km<sup>2</sup>로서 가는 곳마다 사원, 석상, 사당이 있고 위락시설과 공원이 있지만, 특히 발리섬의 무용이 유명하므로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발리섬의 종교적 행사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은 전통적인 발리무용과 반주에 사용되는 가멜란 음악이다. 발리무용은 종류가 수백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인도의 신화에서 취해진 것으로 싸움이나 연애 등이 「테마」로 되어 있다.

발론은 선악의 싸움을 나타내는 무용으로 사자왕 케케트는 선의 심볼인 원숭이를 시종으로 데리고 있으며, 악을 나타내는 괴수 랑구라는 마녀를 따르고 있다. 이는 권선징악을 나타내는 무용으로서 최후에 단도를 가지고 남자들이 춤을 춘다.

케치는 원숭이 춤이라고도 한다. 왕자「라아마」가 아름다운 왕비 시이타를 뺏아간 악마「라바나」를 치는 이야기로서 왕자를 돕는 원숭이 군단 100명이 참여하는 마당은 박력이 있다.

레곤은 옛날 신화에서 유래된 춤인데 사랑싸움을 전설적으로 그리고 있다. 힘으로는 사랑을 얻고자 하는 연인에게 완강히 거절하는 여인의 사랑은 숭고하게 보인다.

이와같은 무용은 대표적인 것에 불과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된 20여종의 춤은 음색이나 연희 등이 한결같이 현대적 감각에 알맞게 구성되어 있어서 높은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무용은 덴파사르(Denpasar)에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고 월별 공연캘린더가 계획되어 있다.

44) 金庸來, “地方文化行事의 經營收益化 方案”, 「地方行政」, 10월호, 1994, p. 25.

인도네시아 발리축제는 매년 6월에 한달간에 걸쳐 열린다.<sup>45)</sup>

'92년의 경우 우리 제주도 민속예술사절단이 이 축제에 참가했는데 개막식 때는 10만 관중이 운집하고 부통령과 중앙 정부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적으로 거행 되었다. 개막식에 이어서 거리 축제가 펼쳐지고 매일 저녁 문화 예술센터 공연장에서 민속예술이 공연된다. 이 기간동안 100여 개의 예술단이 초청되어 공연함으로써 세계적인 축제로 성공하였다. 이 기간동안 20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옴으로써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성공된 사례가 되고 있다.

## 2. 韓國의 郷土 文化祝祭

### 1) 韓國의 郷土 文化祝祭 現況

오늘날 전국적으로 향토 축제의 수는 많지만 축제적 성격이 뚜렷한 향토 축제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특정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 역사적 공간에 대한 기념에서 비롯되었거나 전통적인 마을굿, 대동놀이의 전통에서 비롯된 본래적 의미에서의 향토 축제 못지 않게 특별한 기념 대상이 분명치 않은 채 단지 그 지역 지명만을 따서 만든 '...문화제' 형태의 유사 향토 축제도 적지 않다. 실제로 '...문화제'라는 행사명으로 개최되는 향토 축제도 적지 않다. 실제로 '...문화제'라는 행사명으로 개최되는 향토 축제 가운데 70% 이상이 그 개최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것들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문화제'라고 명명되는 향토 축제 가운데에서 다수는 향토 축제라고 하기 곤란한 것들이다.

조사대상 향토 축제 가운데 특정 인물에 대한 기념에서 비롯된 향토 축제의 수는 17개로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여 시작된 향토 축제는 10개로서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표. 2>와 같다.

---

45) 필자는, '92년 6월에 제주도 민속예술사절단이 일원으로 발리예술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관람할 기회를 가졌다.

<표. 2>

한국의 향토 문화축제 현황

행사명	지역	장소	회수	시기	주최·주관
남이장군대제	서울 용산	용문동	?	11	남이장군대제추진위
달맞이 축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	11	1	해운대지구 번영회
달구벌 축제	대구직할시	두류운동장	10	10	예총 대구지부
정월대보름맞이 화도진 축제	인천 동구	화도진 공원	2	2	구청
고싸움 시연	광주 광산구	광산구 칠석동	22	1	고싸움놀이 보존회
화홍문화제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일원	20	10	문화원
만안문화제	경기도 안산시	문예회관	8	10	문화원
소요문화제	경기도 동두천시	시민회관	9	5	문화원
행주문화제	경기도 고양시	문예회관	7	9	문화원
소사벌문화제	경기도 평택시	시 일원	7	10	문화원
웃내골문화제	경기도 군포시	시 일원	2	9	군포시문화예술단체
매홀문화제	경기도 화성군	학교 운동장	8	9	문화원
울곡문화제	경기도 파주군	군 관내	6	10	문화원
반월문화제	경기도 포천군	종합 운동장	7	9	문화원
백운문화제	경기도 양평군	시 일원	11	10	문화원
설봉문화제	경기도 이천군	군 관내	7	10	설봉문화제 추진위
용구문화제	경기도 용인군	공설 운동장	8	5	문화원
백성문화제	경기도 안성군	군민회관	5	10	문화원
강도문화제	경기도 강화군	공설 운동장	7	6	위원회, 문화원
소양제	강원도 춘천시	종합 운동장	16	10	소양제 위원회
치악문화제	강원도 원주시	문예회관	11	10	위원회, 문화원
강릉단오제	강원도 강릉시	고수부지	?	10	강릉단오제 위원회
이울곡선생제	강원도 강릉시	오죽헌	32	10	이울곡선생제전위
동해무릉제	강원도 동해시	공설 운동장	10	2	위원회, 문화원

행 사 명	지 역	장 소	회수	시기	주 회·주 관
태백제	강원도 태백시	공설 운동장	12	10	위원회, 문화원
설악제	강원도 속초시	문예회관	28	10	추진위원회, 문화원
죽서문화제	강원도 삼척시	고수부지	21		죽서문화제 위원회
의암문화제	강원도 춘천시	학교 운동장	9		의암제 위원회
한서제	강원도 홍천시	학교 운동장	16		위원회, 문화원
대풍문화제	강원도 횡성군	읍 일원	11	10	위원회, 문화원
단종문화제	강원도 영월군	장릉	27	4	단종제 위원회
노성대축전	강원도 평창군	운동장	16	10	노성대축전 위원회
정선아리랑제	강원도 정선군	공설 운동장	17	10	위원회, 문화원
태봉제	강원도 철원군	학교 운동장	11	10	문화원
용화축전	강원도 화천군	공설 운동장	11	10	용화축전 위원회
양록제	강원도 양구군	종합 운동장	11	10	양록제 위원회
합강문화제	강원도 인제군	종합 운동장	11	9	합강제전 위원회
수성문화제	강원도 고성군	공설 운동장	15	10	위원회, 문화원
현산문화제	강원도 양양군	고수부지	7		위원회, 문화원
명주문화제	강원도 명주군	읍 일원	2	10	무천제전 위원회
소금강청학제	강원도 명주군	소금강 일원	17	10	청학제전 위원회
두타문화제	강원도 삼척군	공설 운동장	3	10	두타문화제 추진위
강서농자놀이	충북	고수부지	11	10	국악협회 충북지부
우록문화제	충북 충주시	공설 운동장	23	10	예총충주지부
의림문화제	충북 제천시	종합 운동장	9	10	문화원
청원민속제	충북 청원군	학교 운동장	5	9	문화원
속리축전	충북 보은군	공설 운동장	16	10	문화원
중봉충열제	충북 옥천군	공설 운동장	18	9	문화원
성산축전	충북 진천군	공설 운동장	15	10	문화원
괴산문화제	충북 괴산군	공설 운동장	9	10	문화원

행 사 명	지 역	장 소	회수	시기	주 회·주 관
설성문화제	충북 음성군	공설 운동장	12	10	문화원
중원문화제	충북 중원군	중원 체육공원	2	10	문화원
청풍문화제	충북 제천군	종합 운동장	3	10	문화원
소백산철쭉제	충북 단양군	소백산	11	5	문화원
증평문화제	충북 증평시	체육공원	2	10	문화원
도원문화제	충남 연기군	군 일원	9	4	도원문화제 추진위
온양 아산문화제	충남 온양시	시 일원	32	4	아산문화제 추진위
매현문화제	충남 예산군	군 일원	20	4	월진회
놀이향토제	충남 논산군	군 일원	6	10	위원회, 문화원
칠갑문화제	충남 청양군	군 일원	8	10	위원회, 문화원
영등제	전남 진도군	회동리 일원	16	4	문화원, 영등제보존회
형산문화제	경북 포항시	종합 운동장	17	10	문화원
안동민속축제	경북 안동시	시민 운동장	23	6	문화원
금오문화제	경북 구미시	시내 일원	7	10	문화원
소백문화제	경북 영주시	시민회관	8	10	문화원
상주문화제	경북 상주시	군 일원	13	10	문화원
영강문화제	경북 점촌시	시민 운동장	3	10	문화원
군위문화제	경북 군위시	학교 운동장	10	10	문화원
의성문화제	경북 의성시	읍 일원	12	10	문화원
주왕산수달래제	경북 청송시	주왕산	8	5	문화원
청송문화제	경북 청송시	용전천	11	10	문화원
복사꽃큰잔치	경북 영덕군	공원	19	4	문화원
일월신제	경북 영일군	일월사당	16	10	문화원
자인단오한장군제	경북 경산군	자인면 일원	?	6	한장문화제 보존위
성주문화제	경북 성주군	군민회관	9	10	문화원
칠곡문화제	경북 칠곡군	운동장	9	10	문화원

행 사 명	지 역	장 소	회수	시기	주 최·주 관
선산군민축제	경북 선산군	학교 운동장	23	10	문화원
예천문화제	경북 예천군	읍 일원	17	10	문화원
영풍문화제	경북 영풍군	군 일원	5	10	문화원
청량문화제	경북 봉화군	공설 운동장	14	10	문화원
성류문화제	경북 울진군	군민 체육관	17	10	울진군
진해군항제	경남 진해시	시 일원	31	4	이충무공 선양회
가락문화제	경남 진해시	시 일원	17	4	가락문화제전 위원회
옥포대첩제	경남 장승포시	시 일원	30	5	위원회, 문화원
처용문화제	경남 울산시	공설 운동장	27	6	위원회, 문화원
한산대첩제	경남 충무시	공설 운동장	32	10	한산대첩기념제전위
3·1민속문화제	경남 창녕군	놀이마당	32	3	3·1민속문화향상위
의병제	경남 의령군	공설 운동장	21	4	의병제전위원회
아랑제	경남 밀양시	시 일원	36	5	밀양아랑제전위원회
소가야문화제	경남 고성군	공설 운동장	18	10	문화제보존회, 문화원
화천문화제	경남 남해군	읍 일원	3	10	화천문화제전위원회
상록문화제	충남 당진군	군 일원	17	9	상록문화제 추진위
백제문화제	충남 공주시	시 일원	39	10	백제문화제 추진위
금산인삼제	충남 금산군	군 일원	13	9	금산인삼제 추진위
만세보령제	충남 보령군	군 일원	5	10	만세보령제 추진위
저산문화제	충남 서천군	군 일원	5	9	저산문화제 추진위
홍주문화제	충남 홍성군	군 일원	4	10	홍주문화제 추진위
서산문화제	충남 서산시	시 일원	5	10	서산문화제 추진위
천안삼거리 문화제	충남 천안시	시 일원	7	9	천안삼거리문화제추진위
태안문화제	충남 태안군	군 일원	2	10	태안문화제 추진위
은산별신제	충남 부여군	은산마을 일원	?	?	은산별신제 보존회
전주 대사슴놀이	전북 전주시	실내체육관	11	11	전주대사슴 보존회

행 사 명	지 역	장 소	회수	시기	주 최·주 관
풍남제	전북 전주시	실내체육관	35	6	풍남제전 위원회
진포대첩제	전북 군산시	공설 운동장	2	10	군산시
정읍사 문화제	전북 정주시	예술회관	4	10	정읍사 문화제전위
춘향제	전북 남원시	광한루	63	5	춘향문화선양회
의암주 논개제전	전북 장수군	의암사	?	10	장수군
모양성제	전북 고창군	모양성	20	10	위원회, 문화원
동백연	전북 고창군	선운산	17	5	고창군
벽골제	전북 김제군	벽골제	34	4	예총전북지부
남도문화제	광주직할시	공설 운동장	21	10	전라남도
진남제	전남 여수시	운동장	27	5	진남제전위원회
팔마문화제	전남 순천시	운동장	11	10	추진위원회
망마제	전남 여천시	실내 체육관	4	10	여천시
지리산 약수제	전남 구례군	화엄사	30	4	문화원
백운산 약수제	전남 광양군	백운산	13	3	광양군 번영회
인향제	전남 승주군	군청광장	20	5	문화원
다향제	전남 보성군	학교 운동장	20	5	추진위원회
보림문화제	전남 장흥군	강변	23	5	위원회, 문화원
금릉문화제	전남 강진군	학교 운동장	21	9	문화원
옥당제	전남 영광군	공설 운동장	16	10	문화원
청해제	전남 완도군	공설 운동장	22	5	위원회, 문화원
진영단감제	경남 김해군	학교 운동장	8	10	청년회의소, 협동조합
독로문화제	경남 거제군	군 일원	5	10	독로문화제 추진위
지리산 평화제	경남 산청군	군 일원	31	10	위원회, 문화원
수양제	경남 사천군	군 일원	11	10	수양제 추진위
대야문화제	경남 합천군	군 일원	8	10	대야문화제 추진위
삼양문화제	경남 양산군	군 일원	13	10	위원회, 문화원
하동문화제	경남 하동군	학교 운동장	6	10	문화원
비사벌문화제	경남 창령군	읍 일원	10	10	문화원
삼진문화제	경남 창원군	군 일원	31	9	문화원
천령문화제	경남 함양군	읍 일원	24	9	위원회, 문화원
아람문화제	경남 거창군	공설 운동장	32	9	아람제 추진위원회
한라문화제	제주도	공설 운동장	33	10	예총제주도지회

자료 : 문화체육부·한국관광공사, 「'95 한국의 축제와 행사」 1995을 참고하여  
필자가 구성함.

## 2) 韓國의 鄉土 文化祝祭 實態 分析

### (1) 향토 축제의 확대 추이

각각의 조사대상 향토 축제들이 개최되어 온 횟수는 각각의 향토 축제들이 연회되어온 축제의 연륜을 보여 준다. 다음 <표 3-1>은 조사대상 향토 축제들이 개최되어 온 횟수를 조사한 것인데 이 표에는 해방 이후 새로이 생겨난 향토 축제의 확대 추이가 잘 나타나 있다.

<표. 3-1> 개최 횟수·연도별 신생 향토 문화 축제 수

개 최 횟 수	최 초 개 최 연 도	신 생 향 토 축 제 수
1~ 5회	1989~1993년	21
6~10회	1984~1988년	29
11~15회	1979~1983년	25
16~20회	1974~1978년	24
21~25회	1969~1973년	11
26~30회	1964~1968년	6
31~35회	1959~1963년	10
36~40회	1954~1958년	2
41~45회	1949~1953년	0
63회	1927년	1
계		129

자료 : 한국의 축제 현황에 의거, 필자가 분석 구성함.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 향토 축제의 증가 추이는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다. 1945년부터 1973년까지 20년 동안에 새로이 생겨난 향토 축제의 수는 총 29개로서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1974년부터 1993년까지 20년 동안에 생겨난 향토 축제의 수는 99개로서 전체 향토



래 놀이 등이 추석을 중심으로 연회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향토 축제가 연회되는 시기에 있어서 정월 대보름은 거의 무시되어 있다. 다음 <표. 4>는 월별로 향토 축제가 행해지는 시기를 조사한 것이다.

<표. 4> 향토 문화축제 개최 시기

월	향토축제 수	월	향토축제 수
1~3	5(3.7%)	3~4	13(9.7%)
5~6	18(13.4%)	7~8	1(0.7%)
9~10	95(70.8%)	11~12	2(1.4%)

자료 : 한국의 축제 현황에 의거, 필자가 분석 구성함.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토 축제의 개최 시기는 거의 대부분 9~10월에(특히 10월) 집중되어 있으며, 정월 대보름에 해당하는 1~2월에는 겨우 5건(전체의 3.7%)의 향토 축제가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향토축제의 개최 시기가 10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정월 대보름이나 단오의 의미가 그만큼 퇴색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향토 축제들이 전통적 마을축제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그렇다고 특정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 등을 기념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도 아닌 단순히 '군민의 날'을 대체한 관제적 행사가 오늘날 향토 축제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제적 행사들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대개 '...문화제'라는 형태의 행사명을 취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개최되고 있는 향토 축제 74개 가운데 85%인 63개가 9월과 10월에 개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9월과 10월에 개최되지 않는 향토 축제의 다수는 상대적으로 그 개최 동기가 분명하고 그 행사명은 '...문화제'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다.

### (3) 향토 축제 개최 공간

오늘날 향토 축제가 그 축제와 관련이 있는 특정 공간에서 행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다음 <표. 5>는 조사대상 향토 축제 가운데 그 개최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44개를 제외한 나머지 90개 향토 축제의 개최 장소를 분류한 것이다. 이 표에서 나타나듯이 오늘날 향토 축제가 그 축제와 관련있는 특정 공간에서 행해지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개최 장소를 밝힌 향토 축제의 21.1%에 불과하며 나머지 78.9%의 향토 축제는(공설·학교) 운동장, 공원, 고수부지, (문예·시민)회관, 실내 체육관 등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행해지고 있다. 과거의 전통 마을축제가 특별히 구별된 신성 공간(특정한 산, 바위, 나무 밑)에서 이뤄져 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향토 축제에서는 축제 공간의 신성성은 거의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단지, 행사의 편의를 위해서 그 축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축제가 아닌 행사만을 연출해 내고 있을 뿐이다. 축제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연출될 때 비로소 축제다워질 수 있다. 축제는 기본적으로 일상성으로부터의 이탈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상성으로부터 벗어난 구별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규범화된 일상 행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표. 5> 향토 문화축제 개최 공간 현황

향토축제 개최 공간		향토축제 수
(공설·학교)	운동장	50
	공원	4
	고수부지	4
(문예·시민)	회관	9
	실내 체육관	4
(축제와 관련한)	특정 장소	19(21.1%)
계		90

자료 : 한국의 축제 현황에 의거, 필자가 분석 구성함

#### (4) 향토 축제의 주최자

오늘날 향토 축제는 크게 둘로 나뉘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승 행사를 주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민간 주도형 향토 축제이고 다른 하나는 단절된 문화 복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위로부터의 관 주도형 향토 축제이다. 관 주도형 향토 축제의 경우를 보면, 도·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지부, 지역 문화원, (추진·집행)위원회 등이 그 주최자가 되어 있다. 조사대상 향토 축제 가운데 도·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한국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지부, 문화원, 제 위원회가 그 주최자가 되어 있는 향토 축제의 수는 124개로써 전체의 93%에 이른다. 오늘날 향토 축제는 이러한 위로부터의 관 주도형 향토 축제가 그 대부분인 것이다.

#### 3) '94 韓國 訪問의 해 觀光 文化祝祭

우리나라에서 문화축제를 문화관광 상품으로 가시화하기 시작한 것은 「'9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면서 부터였다. '90년 9월 27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된지 6백주년을 기념하는 1994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하였다. 정부는 이어 '92년 2월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관련업계와 단체의 관계자 25명으로 '94 한국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교통부 중심의 정부지원 기구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4년 한해 동안 4백만명의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42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사업은 지난 '70년대 국가 전력 사업으로 지원 육성된 이후 고속성장을 거듭하다가 '88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수그러들기 시작한 관광산업을 되살리겠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이렇게 막 오른 한국 방문의 해 사업은 문화축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한해 동안 전국 곳곳에서 일년 내내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에 따라 축제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과 함께 문화축제는 시작됐다. 용평, 무주, 알프스 스키장등에서 눈축제가 펼쳐졌고, 한강 시민공원에서는 국제 연날리기 대회가 행해졌다. 4월 부터는 봄축제인 꽃축제가 펼쳐졌다. 4월에는 고도 경주에서 한·일 마라톤 대회가 열렸고 5월 부산해운대에서는 윈드서핑 대회가 벌

어졌다.

여름 축제는 6월에 서울 명동에서 웨이터 달리기 대회가 벌어졌고, 7월에는 제주도 함덕해수욕장에서 국제철인 3종경기가 펼쳐졌다. 가을이 되면서는 전통 문화축제 중심으로 행사가 펼쳐졌는데, 백제문화제, 충북예술제, 한라문화제, 신라문화제 등이 지방에서 다채롭게 펼쳐져 문화가 주도하는 관광산업의 국제화의 계기를 마련했다.<sup>46)</sup>

한국관광공사는 이처럼 한국 방문의 해 기념으로 펼쳐진 문화축제는 국제수준의 관광상품으로 개발, 활성화 함으로써 2,000년에는 외래관광객 700만명을 유치, 세계 10대 관광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94 한국 방문의 해 주요 문화축제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94 한국 방문의 해 관광문화축제

행 사 명	개 최 일 자	장 소	행 사 내 용
방 문 의 해 개 막 기 념 행 사	'93. 12. 31.~ 94. 1. 1.	종각, 시청앞 광장	보신각 타종, 신년메시지, 축하공연, 마당놀이 등
방 한 객 기 념 환 영 식	1. 1.~12. 31.	김포, 김해, 제주, 국 제공항 및 부산항	첫번째, 백만대수, 마지막번째 입국자를 대상으로 기념식 개최
눈 축 제	1. 22.~2. 20.	용평리조트, 무주리조 트, 알프스리조트	눈조각 경연대회, 스키페스티 벌, 열기구비행, 레이저쇼 등
광 산 고 싸 움 놀 이	2. 24	광주직할시	고싸움놀이, 농악놀이, 민속놀 이 등
국 제 연 날 리 기 대 회	2. 25.~2. 27.	서울(한강시민공원)	연싸움, 높이날리기, 외국인 연 날리기, 연전시회 등
상 설 민 속 공 연	2~12월	서울국립국악원	전통민속공연
시 민 문 화 행 사	3~10월	서울(명동, 이태원, 인 사동)	민속가요제, 고적대퍼레이드, 사물놀이 공연 등
진 해 군 향 제	3. 29.~4. 10.	진해시	전야제, 경축시가행진, 문화행 사 등
국 제 벗 꽃 마 라 톤 대 회	4. 8.~4. 10.	경주보문단지일원	5km, 10km, 42.195km 등 세계 각 국 아마추어들이 참가

46) 韓國觀光公社, 「'94 한국 방문의 해 사업계획」, 한국관광공사, 1992, pp. 2~13.

행 사 명	개 최 일 자	장 소	행 사 내 용
PATA 행 사 - 관 광 교 육 전 - 세 계 지 부 회 의 - 연 차 총 회	4. 11.~4. 14. 4. 14.~4. 16. 4. 17.~4. 21.	서울시 경주시 서울시	관광상품 판매관련 회의 및 전문가 상담 등 PATA 각 지부와의 유대강화 및 공동 협력사항 협의의 이사회, 정부지원회의, 방문위원회 등의 등 각종 회의
꽃 축 제 - 튜립 및 장미 축 제 - 벚꽃 축 제	4. 1.~6. 30. 4. 9.~4. 12.	용인자연농원 경주시 및 보문단지	꽃사진콘테스트, 장미콘서트, 네덜란드 민속공연단 공연 등 벚꽃마라톤대회, 시민건강걷기대회, 민속놀이, 예술행사 등
서울 놀이 마당	4~10월	서울놀이마당	전통민속공연
진 도 영 등 제	5. 11.~5. 13.	진도군	전야제, 영등살풀이, 민속문화행사 등
해 변 제 (국 제 윈 드 서 핑 대 회)	5. 11.~5. 15.	부산해운대 해수욕장	코스레이싱, 슬랄롬경기
남 원 춘 향 제	5. 17.~5. 24.	남원시	전국 판소리명창대회, 춘향선발대회, 국악 및 농악공연 등
강 룡 단 오 제	6. 11.~6. 15.	강릉시남대천	제례, 강릉단오굿, 관노가면극, 강릉부사영신행렬 재현 등
전 주 풍 남 제	6. 12.~6. 18.	전주시	전주대사슴놀이, 전주서화, 백일장, 풍물시장, 기타행사 등
한국 국제 요리 축 제 - 주 제 별 요리 축 제 - 웨 이 터 경 주 대 회 - 국 제 요리 경 연 대 회	6. 4~6. 30. 6. 4. 6. 27.~6. 30.	관광호텔 및 전문식당(85개소) 서울 KOEX	일일「오늘의 요리(만찬)」행사 개최 및 경품추첨 개인부문달리기 및 단체릴레이 요리경연(더운요리, 찬요리부문)
국 제 철 인 3 종 경 기 대 회	8월중	제주도	수영 3.9km, 사이클 180.2km, 마라톤 42.195km 3종경기
국 제 관 광 박 략 회 의	9. 13.~9. 18.	서울(KOEX)	소비자, 업계대상 관광전시회
수 중 사 진 촬 영 대 회	9. 24.~9. 30.	제주도서귀포근해	수중사진촬영대회, 수중사진전시회 등
단 풍 제 (국 제 산 악 마 라 톤 대 회)	10월중	설악산	국제산악마라톤대회 및 부대행사
백 제 문 화 제	10. 1.~10. 4.	부여군	전야제, 백제대왕제, 전통민속행사, 문화예술행사 등
충 북 예 술 제	10월중	청주시	국악경연대회, 농악경연대회, 경축행사, 토산품전시 등
한 라 문 화 제	10월중	제주도일원	종합문화예술축제, 한라산신제, 향토축제 등
신 라 문 화 제	10. 2~10. 8	경주시	전야제, 제전, 공개행사, 민속공연, 학술전시회 등
국 제 태 권 도 한 마 당 대 회	11월중	서울올림픽공원	태권도대회, 시범경기, 부대행사

자료 : 한국관광공사, "94 한국 방문의 해 사업계획," 1992.

## Ⅳ. 濟州道 文化觀光과 文化祝祭의 實態와 問題點

### 1. 濟州道 文化觀光의 實態와 問題點

#### 1) 濟州道 觀光의 環境的 背景

제주도는 섬이라는 독특한 지리환경과 옛 탐라국의 역사가 깃든 특이한 민속문화로 하여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고유한 관광성을 자랑한다.

지리적으로는 섬 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풍부한 동·식물을 거느린 삼림과 계곡, 기암과 소연, 기생화산과 분화구, 동굴과 초원 등 오밀조밀한 자연경관이 천혜의 아름다움을 빚어낼 뿐만 아니라, 섬의 사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서 바닷가의 기암과 폭포, 백사장과 도서 등 해안 일대가 천연미의 절경을 이룬다. 이들 산과 바다는 종합적인 관광기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지역 문화의 모습은 삼성혈에서 비롯된 역사 유적들은 물론 각종 문화재와 민속, 그리고 정신문화에서 개성적인 관광성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도 석다, 풍다, 여다로 일컬어 지고 있는 삼다와 도둑없고, 거지없고, 대문없다는 삼무, 아름다운 인심,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산물로 집약된 삼려의 풍토가 제주도의 매력을 더 해 준다.<sup>47)</sup>

자연적 관광자원으로는 영주십경을 비롯해서 계곡, 동굴, 수림, 기생화산, 식물, 해수욕장 등이 풍부하고, 인문자원으로는 보물, 사적, 중요민속자료, 무형문화재 등이 산재해 있으며, 레저자원으로는 낚시터, 등산, 수렵자원들이 널려 있다.

제주도의 주요 관광자원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국가지정 문화재는 <표. 8>, 제주도지정 문화재는 <표. 9>의 현황과 같다.

47) 濟州道, 「濟州의 文化財」, 제주도, 1982, pp. 408~410.

<표. 7>

제주도 자연·레저 관광자원 현황

(’94. 12. 31. 현재)

구 분	개 소	주 요 자 원
瀛州十景	10	城山日出, 鹿潭晚雪, 橋林秋色, 瀛邱春花, 山浦釣漁, 古藪牧馬, 正房夏瀑, 山房窟寺, 紗峯落照, 靈室奇岩
계곡	11	탐라계곡, 구구곡, 안덕계곡, 어승생, 백록담, 성판악, 삼각봉, 왕관릉, 무수천, 돈내코, 수악계곡
폭포 및 소연	6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용연, 영도폭포, 용소연포
동굴	10	만장굴, 빌레못굴, 김녕사굴, 미천굴, 와홀굴, 소천굴, 협재굴, 쌍용굴, 구린굴, 황금굴
기암	10	용두암, 성산기암, 외돌개, 바람바위, 오백나한, 방선문, 절부암, 우두암, 용암수형, 산방산
수림	4	비자림, 동백군, 구상나무군, 철쭉
기생화산	360	노루오름, 사라오름, 입산봉, 산굼부리, 송악산 등
식물	종 1,835	왕벗나무, 문주란, 난(한란, 새우내란) 등
동물 및 곤충	종 800	꿩, 황새, 팔색조, 노루, 오소리, 제주족재비 등
해수욕장	개소 10	이호, 광지, 함덕, 협재, 김녕, 화순, 중문, 표선, 신양, 하모
납시터	개소 15	사라봉, 서부두, 용두암, 도두, 다려도, 형제도, 비양도, 토끼섬, 두모, 용수, 하가, 차귀도, 마라도, 우도, 추자도
등산	코스 5	관음사, 어승생, 영실, 성판악, 돈내코
수렵	2	대유수렵장, 도전역(금렵구 제외)
기타	16	감골원, 송당목장, 이시돌목장, 제동목장, 향몽유적지, 모충사, 삼매봉, 목석원, 성읍민속마을, 제주민속촌, 해양수족관, 관광식물원, 조각공원, 신천지미술관, 배릿내어촌, 제주분재예술원

자료 : 제주도, 관광문화 주요행정현황, 1995, pp. 25~26.

〈표. 8〉

제주도 국가지정 문화재 현황

(’94. 12. 31. 현재)

구 분	계	보 물	사 적	천 연 기 념 물	중 요 민 속 자 료	중 요 무 형 문 화 재
계	40	2	2	24	7	5
도 일 원	2			2		
제 주 시	11	2	2	3		4
서 귀 포 시	7			7		
북 제 주 군	9			8	1	
남 제 주 군	11			4	6	1

자료 : 제주도, 문화현황(문화예술·문화재), 1995.

〈표. 9〉

제주도 지정 문화재 현황

(’94. 12. 31. 현재)

구 분	계	유 형 문 화 재	무 형 문 화 재	기 념 물		민 속 자 료	문 화 재 자 료
				사 적	수 목		
계	69	14	9	21	18	7	
도 일 원	5			2		3	
제 주 시	25	8		7	6	4	
서 귀 포 시	3			1	2		
북 제 주 군	25	3	6	9	7		
남 제 주 군	11	3	3	2	3		

자료 : 제주도, 문화현황(문화예술·문화재), 1995.

2) 濟州道 觀光 成長의 變遷

제주도의 관광개발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 제주도가 지닌 관광이 부각되면서 제주도 개발의 미래상을 관광 주도형으로 틀 잡아 나갔다.

1964년에는 건설부에 의해서 제주도 건설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1965년 1월 제주도청 행정기구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광 운수과가 신설되어 제주도 관광개발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1966년 10월에는 국토건설 종합법에 의해 제주도 특정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이때부터 제주도는 관광개발을 도정 주요시책으로 내걸었다. 196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제주도 관광개발은 차츰 본 궤도에 접어 들었다. 1969년 제주-부산-대판간 국제 항공 노선이 개설되고, 육상, 해상, 항공 등 대내외 교통 수단이 대폭적으로 발전하였다.

1970년대에도 1960년대에 굳혀진 지역관광개발 방침이 계승 발전되었다. 1971년 용연, 만장굴, 안덕계곡, 정방폭포, 천제연 등 5개 지구가 「지정관광지」로 선정되어 관광시설에 정부지원을 받게 되었다. 1973년에는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성안되었는데, 이 계획은 제주도를 국제 관광지로 만드는 청사진이었다. 이 계획과 아울러 보잉 727기가 취항되었고, 1974년 KAL 호텔 개관, 1975년 장거리 자동전화 시설, 1978년 이후 제주-부산, 제주-목포, 제주-완도·여수간 카페리 취항, 그리고 중문 및 신제주, 오라관광단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80년대에는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되었다.

1984년 5월 제13회 전국소년체전개최,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 성화가 제주에 도착하여 제주를 내외에 알리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했다. 1985년 3월 건설부공고 제13호로 확정된 제주도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 전역에 대한 관광 주도형 종합개발계획으로서 기본방향은 국민관광에 기반을 둔 국제관광 유도, 지역개발촉진, 계층적 생활권 구축으로 주거환경 정비, 자연 경관의 보존 및 관리에 두었다.

1991년 12월에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이 법률 제4485호로 공포되었고, 1992년 7월 부터 1994년 2월까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1994년 6월에 동 계획이 결정, 공고되었다.

이처럼 제주도의 관광산업의 성장과 관광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관광객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관광수입도 크게 신장되면서 관광은 제주도의

중추산업으로 자리잡았다.<sup>48)</sup>

제주도의 관광객은 관광개발 초기인 1960년 6,590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관광개발 사업의 진척과 더불어 해마다 늘어나 1966년 1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서 1970년에는 20만명, 1977년 50만명, 1983년에 이르러서는 100만명이 넘어섰고 관광수입도 844억원을 넘어섰다. 1985년에는 130만명에 관광수입 1,157억원, 1988년에는 200만명의 관광객이 내도하여 2,382억원의 관광수입을 벌어들였다. 1991년도에 이르러서는 320만명이 관광객이 들어와서 5,132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렸고, 1994년에는 369만여명의 관광객이 내도하고, 관광수입도 8,895억원에 이르게 되었다.<sup>49)</sup> 제주도 관광객 추세 및 관광수입 현황은 <표. 10>과 같으며, 내도관광객은 <표. 11>, 외국인 국적별 내도현황은, <표. 12>와 같다.

<표. 10> 제주도 관광객 추세 및 관광수입 현황

연 도 별	관 광 객 (천명)			관 광 수 입 (억원)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81	724	682	42	425	341	84
'82	860	816	44	623	490	133
'83	1,025	980	45	844	686	158
'84	1,217	1,168	49	1,012	841	171
'85	1,323	1,249	74	1,157	899	258
'86	1,492	1,376	116	1,437	1,032	405
'87	1,758	1,606	152	1,738	1,205	533
'88	2,000	1,842	158	2,382	1,751	631
'89	2,643	2,476	167	3,442	2,723	719
'90	2,992	2,757	235	4,319	3,308	1,011
'91	3,205	2,929	276	5,132	3,838	1,294
'92	3,422	3,179	243	7,970	6,217	1,753
'93	3,464	3,187	277	8,516	6,442	2,074
'94	3,693	3,470	223	8,895	7,153	1,742
'95계획	3,800	3,500	350	9,954	7,516	2,438

자료 : 제주도, 관광문화 주요 행정현황, 1995, p. 28.

48) 濟州道, 「濟州道誌」第2卷, 1993, pp. 1044~1045.

49) 上掲書, p. 47.

〈표. 11〉

내도 관광객 분류

구 분	'93	'94	증 가 율
계	3,463,908(100%)	3,692,548(100%)	7%
일 반 단 체	615,884(18)	659,812(18)	7%
수 학 여 행	212,790(6)	266,632(7)	25%
신 혼 부 부	463,828(13)	424,196(12)	△ 9%
개 인(기타)	1,894,047(55)	2,119,466(57)	12%
외 국 인	277,359(8)	222,442(6)	△20%

자료 : 제주도, 관광문화 주요 행정현황, 1995, p. 29.

〈표. 12〉

외국인 국적별 내도 현황

년 도	계	교 포	일 본	미 국	대 만	영 국	독 일	홍 콩	기 타
'84	48,818	12,692	28,803	4,393	976				1,954
'85	73,676	16,320	42,946	6,971	2,084	587	523		4,245
'86	115,753	21,157	70,837	7,012	5,120	481	672	4,097	6,377
'87	152,389	25,434	84,874	11,863	18,553	487	1,033	4,798	5,347
'88	157,804	28,080	88,442	10,294	17,085	3,543	1,684	3,619	5,057
'89	167,252	27,041	103,685	8,146	17,699	966	1,010	4,701	4,004
'90	235,073	30,824	140,454	10,573	36,290	845	886	9,974	5,227
'91	275,371	24,085	181,962	8,048	39,739	1,117	806	14,166	5,448
'92	242,576	12,224	161,983	5,420	43,033	1,835	1,255	13,595	3,231
'93	277,359	23,891	189,535	9,299	28,668	2,564	1,542	16,229	5,631
'94	222,442	31,180	156,900	5,344	19,587	648	535	4,294	3,954
구성비	100%	14.0	70.5	2.4	8.8	0.3	0.27	1.9	1.8

자료 : 제주도 관광과, 관광문화 주요 행정현황, 1995, p. 29.

### 3) 濟州道 觀光資源의 活用 實態

앞에서 제주도 관광의 환경적 배경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주도에는 자연적, 인문적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자원들을 관광객들이 전부 관람하고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기에는 관광객의 경제적 시간적인 입장 때문에 이들 자원들 중에서 코스를 정하여 관광자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도 관광협회에서는 여행기간별 관광코스과 여행 권역별 관광코스를 선정하여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행기간별 관광은 1일관광, 1박1일 관광, 2박3일 관광, 3박4일 관광으로 구분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코스화 시키고 있으며, 여행 권역별로는 동부 1일권 관광, 중부 1일관광, 서부권 1일관광, 중부-동부권 2일관광, 서부-동부권 2일관광, 중부-서부권 2일관광으로 구성되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행기간별, 여행권역별 관광자원의 분포실태는 다음과 같다.<sup>50)</sup>

#### (1) 여행기간별 관광코스과 관광자원

##### 가. 1일 관광 :

- ① 제주시-삼성혈-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한림공원-산방산-안덕계곡-중문관광단지-5·16도로-제주시
- ② 제주시-용두암-만장굴-성산일출봉-제주민속촌-정방폭포-5·16도로-제주시

##### 나. 1박 2일 관광 :

- ① 제주시-용두암-항목유적지-한림공원-산방산-제주조각공원-농원-천지연폭포 또는 정방폭포-제취
- ② 제주시-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만장굴-성산일출봉-제주민속촌

50) 濟州道 觀光課, 「환상의 낙원」, 제주도 1995, pp. 116~120.

- 제주도 - 용두암 - 신천지 미술관 - 산방산 - 여미지 식물원 - 천제연폭포 - 농원 - 천지연 또는 정방폭포 - 제주도
- ③ 제주도 - 민속자연사 박물관 - 삼성혈 - 만장굴 - 비자림 - 성산일출봉 - 쇼핑 - 제주도  
 제주도 - 용두암 - 한림공원 - 로얄마린파크 - 외돌개 - 천지연폭포 또는 정방폭포
- ④ 제주도 - 민속자연사 박물관 - 제주민속촌 - 성산일출봉 - 산굼부리 - 제주도
- ⑤ 제주도 - 용두암 - 삼성혈 -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 한림공원 - 제주조각공원 - 중문관광단지 - 정방폭포 - 산굼부리 - 성읍민속마을 - 동부산업도로 - 제주도
- ⑥ 제주도 - 만장굴 - 비자림 - 성산일출봉 - 제주민속촌 - 천지연폭포 - 신천지 미술관

다. 2박 3일 관광

- ① 제주도 - 용두암 - 항몽유적지 - 한림공원 - 산방산 - 제주조각공원 - 천지연 또는 정방폭포 - 제주도 - 민속자연사 박물관 - 만장굴 - 성산일출봉 - 제주민속촌 - 제주도
- ② 제주도 - 용두암 - 신천지 미술관 - 산방산 - 여미지 식물원 - 천제연폭포 - 천지연 또는 정방폭포 - 제주도 -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 삼성혈 만장굴 - 비자림 - 성산일출봉 - 제주도
- ③ 제주도 - 용두암 - 한림공원 - 로얄마린파크 - 외돌개 - 천지연폭포 또는 정방폭포 - 제주도 -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 제주민속촌 - 성산일출봉 - 제주도

단체 (1): 제주도 - 삼성혈 -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 한림공원(협재·쌍용굴·식물원) - 제주조각공원 - 산방산 - 로얄마린파크 - 천지연폭포 - 숙소 - 용두암 - 만장굴 - 성산일출봉 - 산굼부리 - 제주도

단체 (2): 제주도 -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 신천지 미술관 - 산방산 - 여미

지 식물원 - 천제연폭포(선임교) - 정방폭포 - 숙소 - 용두암 - 만장굴 - 성산일출봉 - 제주민속촌 - 제주시

수학여행(1): 제주시 - 삼성혈 -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 만장굴 - 비자림 - 성산일출봉 - 제주민속촌 - 정방폭포 - 숙소 - 용두암 - 신천지 미술관 - 추사적거지 - 산방산 - 여미지 식물원 - 천제연폭포(선임교) - 제주시

수학여행(2): 제주시 - 삼성혈 -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 항몽유적지 - 한림공원(협재쌍용굴, 식물원) - 제주조각공원 - 산방산 - 로얄마린파크 - 천제연폭포 - 숙소 - 용두암 - 산굼부리 - 성읍민속마을 - 성산일출봉 - 비자림 - 만장굴 - 제주시

관광코스: 서울 - 제주(1박) - 제주관광(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용두암, 만장굴, 삼성혈) - (1) - 성산포 - (2) - 정방폭포, 천제연, 산방굴사, 외돌개 - 중문관광 단지(2박) - (3) (4) - 서울

구간별 주요관광지: (1)방선문: 제주시에서 서남쪽으로 4km 지점 (2)성산일출봉: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48km 지점(제주최동단)  
(3)천제연폭포: 중문관광단지입구소개 (4)협재굴: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

관광코스: 서울 - 서광주 - 목포항(선박) 제주도(1박) - (1) (2) (3) - 제주시 관광(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만장굴, 제주시) (2박) - (4) (5) (6) - 서귀포(밀감원, 중문관광단지, 천제연폭포) - 서울

구간별 주요 관광지: (1) 용두암: 제주시 서쪽 용담동 해변가에 위치  
(2) 삼성혈: 제주시 이도동 하니관광호텔 옆에 위치  
(3) 협재굴: 한림읍 협재리에 소재(협재 해수욕장)  
(4) 정방폭포: 서귀포시 동홍동에 소재  
(5) 천제연 폭포: 중문관광단지 입구 소재  
(6) 성산일출봉: 제주시 동쪽 48km지점 성산포구 앞

라. 3박 4일 관광

정기 : 제주시 - 용두암 - 항몽유적지 - 한림공원(협재 쌍용굴, 식물원) -  
제주조각공원 - 산방산 - 안덕계곡 - 숙소 - 삼성혈 -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 신천지 미술관 - 여미지 식물원 - 천제연폭포(선임교) - 로얄마린파크 - 천지연폭포 - 정방폭포 - 숙소 - 만장굴 - 비자림 - 성산일출봉 - 제주민속촌 - 산굼부리 - 제주시

단체 : 제주시 - 삼성혈 -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 한림공원(협재 쌍용굴, 식물원) - 산방산 - 제주조각공원 - 숙소 - 용두암 - 신천지 미술관 - 여미지 식물원 - 로얄마린파크 - 천지연폭포 - 숙소 - 만장굴, 성산일출봉 - 제주민속촌 - 산굼부리 - 제주시

수학여행 (1) : 제주시 - 삼성혈 -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 항몽유적지 - 한림공원(협재·쌍용굴, 식물원) - 산방산 - 숙소 - 용두암 - 신천지 미술관 - 추사적거지 - 천제연 폭포(선임교) - 외돌개 - 천지연폭포 - 성판악 - 숙소 - 산굼부리 - 성산일출봉 - 비자림 - 만장굴 - 모충사 - 제주시

수학여행 (2) : 제주시 - 삼성혈 -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 항몽유적지 - 한림공원(협재·쌍용굴, 식물원) - 사적거지 - 산방산 - 천지연폭포 - 숙소 - 산굼부리 - 성산일출봉 - 비자림 - 만장굴 - 모충사 - 숙소 - 등산 - 제주시

관광코스 : 제주 도착(1박) - 용두암, 삼성혈,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만장굴 - 중문관광단지 - (1) (2) (3) (4) - 서귀포(2박)

구간별 주요 관광지 : (1) 정방폭포 : 서귀포시 동쪽해안 (2) 산방산 : 안덕면 모슬포에서 동쪽으로 4km 지점 (3) 외돌개 : 서귀포시 약 2km지점 (4) 함덕 해수욕장 :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14km 지점

(2) 여행 권역별 관광코스과 관광자원

가. 동부권 1일 관광

제주(서귀) -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 만장굴 - 성산일출봉 - 제주민속촌 - 천지연폭포 - 5.16도로 - 제주(서귀) - 쇼핑 - 유람선

나. 중부권 1일 관광

제주(서귀) - 용두암 - 항몽유적지 - 산방굴사 - 로얄마린파크 - 천제연폭포 - 농원 - 5.16도로 - 제주(서귀) - 쇼핑 - 유람선

다. 서부권 1일 관광

제주(서귀) - 삼성혈 - 한림공원 - 제주조각공원 - 농원 - 정방폭포 - 5.16도로 - 산굼부리 - 목석원 - 제주(서귀) - 쇼핑 - 유람선

라. 중부-동부권 2일 관광

제주(서귀) - 용두암 -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 항몽유적지 - 산방굴사 - 로얄마린파크 - 천제연폭포 - 농원 - 제주(서귀) - 숙소 - 만장굴 - 성산일출봉 - 제주민속촌 - 천지연폭포 - 5.16도로 - 제주(서귀) - 쇼핑 - 유람선 - 공항, 부두

마. 서부·동부권 2일 관광

제주(서귀) - 삼성혈 -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 한림공원 - 제주조각공원 - 농원 - 정방폭포 - 5.16도로 - 산굼부리 - 목석원

제주(서귀) - 숙소 - 만장굴 - 성산일출봉 - 제주민속촌 - 천지연폭포 - 5.16도로 - 제주(서귀) - 쇼핑 - 유람선 - 공항, 부두

○ 중부·서부권 2일 관광

제주(서귀) - 용두암 - 항몽유적지 - 산방굴사 - 로얄마린파크 - 천제연폭포 - 농원 - 5.16도로 - 제주(서귀) - 숙소 - 삼성혈 - 한림공원 - 제주조각공원 - 정방폭포 - 5.16도로 - 산굼부리 - 목석원 - 제주 - 유람선

⑥ 제주시 - 만장굴 - 삼성혈 -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 한림공원 - 제주조각공원 - 중문단지 - 정방폭포 - 산굼부리 - 성읍민속마을 - 동부산업도로 - 제주시

#### 4) 濟州道 文化觀光의 問題點

제주도의 관광이 오늘날과 같이 급격한 성장을 계속해 온 것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자연 환경이 그 중심 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주 관광을 이끌어온 정책은 정부의 지원아래 제주도가 중심이 된 관주도형이었다. 관주도형으로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어 관광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체계적이고도 전략적인 면이 등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광의 객체인 관광자원을 새로이 개발하고 연출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의 욕구와 동기를 충족시키는데는 관심을 두지 못했다. 제주 관광의 성장사는 곧 관광의 매체인 교통, 숙박, 여행, 알선업 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천혜의 자연경관 위주로 한 관람형 관광에 치중해 온 결과 관광객이 취향이 고급화, 다양화, 문화화 함에 따라 매력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 전통적 이미지는 살리지 못한 서구형 시설 개발과 더불어 내도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야기된 임시 방편적 관광자원의 관리체제로 말미암아 관광자원의 개발상의 철학 빈곤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문화재나 민속 문화자원의 경우 이들에 대한 매력 부여의 인식의 결여와 예산지원의 부진으로 말미암아 수 많은 잠재 자원이 훼손되거나 유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관광성을 지니고 있는 무형 문화재의 경우 자원이 독특하고 다양하나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sup>51)</sup>

현재의 제주도 관광 자원의 유형과 분포상황을 보더라도 문화관광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여행 기간별, 권역별로 문화관광 대상이 되고 있는 관광자원으로는, 삼성혈,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신천지 미술관, 제주 조각공원, 성읍민속마을, 향몽유적지, 추사적거지, 제주민속촌 등이다.

이를 보면 사적 문화자원으로는 삼성혈과 향몽유적지, 민속 문화자원으로는

51) 무형문화재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의무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칠머리 당굿, 영감놀이, 방앗돌 굴리는 노래, 송당, 남읍마을제 정도가 공개되고 있으며, 성읍민속마을의 경우도 아직 공개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성읍민속마을과 제주민속촌, 문화시설로는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과 신천지 미술관, 제주조각공원 뿐이다. 특히 문화축제의 경우는 관광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제주도의 문화관광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보아진다.<sup>52)</sup>

## 2. 濟州道 文化祝祭의 實態와 問題點

### 1) 濟州道 文化祝祭의 形成背景과 文化的 特性

제주도의 무형문화자원은, 제주 사람들이 살아 온 생활환경인 지리·풍토적 조건과 살아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었던 역사적 조건이 상호 작용한 전통문화의 토양속에서 형성되고 전승되어 왔다. 즉 제주도는 바다로 에워 싸인 절해고도의 지리적 여건과 거기에다 척박한 땅과 모진 바람, 비 많은 기후와 바다에 의지하여 살 수 밖에 없었던 풍토를 지녔다. 더구나 신라, 백제에 대한 조공과 섬김, 왜구들의 침탈, 1세기에 걸친 몽고의 지배, 정객들의 유배지로 이용되는 등 끊임없이 수난을 당했던 굴곡 심한 역사가 흘러갔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제주 사람들의 삶의 시련도 참으로 모진 것이었다. 이러한 지리·역사적 요인들이 작용하여 이루어진 제주의 전통문화. 즉 제주의 무형문화는 도서문화성, 서민문화성, 고유문화성이라는 특성을 이루어 내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배경을 고찰하면 잘 드러난다.

#### (1) 地理·歷史的 背景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으로서 목포에서 91마일, 부산에서 168마일 떨어진 남쪽 바다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총면적은 1,820km<sup>2</sup>인데 남·북의 길이가 41km, 동·서의 길이는 73km이며, 섬을 한바퀴 도는 해안선의 길이는 235km이다. 이러한 위치는 제주도의 풍토 기후에 영향을 주어 동·식물의 분포, 산

52) 한라문화제의 경우, 필자도 기획 연출에 참여하여 관광객 참여계획을 수립, 관광업계에 관광객 참석을 요청하고 있으나, 집단적으로 관광객이 관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업의 구조 등에 작용하면서 버림받은 도서·군사적 요충지 등 제주의 역사적 상황에도 의미를 지니게 했다.

제주도는 동·서가 긴 타원형의 화산도로서 1,950m 한라산이 그 중심부에 솟아 있고, 완만한 경사로 사방에 뻗어 내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한라산 주위에는 넓은 초원지대가 이루어져 있고, 360여개의 기생화산이 분포되어 있다. 토지는 농업생산에 불리한 화산회토로서 돌이 많고, 지표를 조금만 파 들어가도 한라산의 화산발이 식어서 형성된 절리층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질적 조건을 흔히 “석다”라는 말로 표현해 왔다.

또한, 제주도의 기후는 년 평균 기온이 14.7°C의 따뜻한 곳으로서는 가장 추운날이라도 -5°C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없으나 바람이 많은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년 평균 풍속이 4.8M/S나 되며, 특히 겨울에는 서북 계절풍이 심하여 10M/S이 넘을 때가 보통이다. 그래서 실제 체감 온도는 훨씬 낮은 것이다. 또한 8~9월에는 태풍이 엄습하여 농작물이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왕왕 있다. 이러한 기후적 조건을 흔히 “풍다”란 말로 표현되어 왔다.

이렇게 “풍다·석다”로 일컬어지는 지리·풍토적 조건은 제주도민의 생활양식의 제주적 문화 특징에 작용하여 제주의 무형문화자원을 형성시키는 배경이 되었다.<sup>53)</sup>

제주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어 현대에 이르렀다.

선사시대의 유적으로는 구석기시대 유적인 빌레못굴 유적을 비롯해서 신석기시대의 유적유물과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에 이르는 유적·유물들이 골고루 발굴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호」등 문헌기록도 있어서 선사문화가 있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그때의 원주민 및 문화의 계통은 미상이다. 다만 한반도를 거쳐 내려온 북방계통과 남쪽에서 흘러온 남방계통의 문화가 복합으로 형성되었으리라고 추측되고 있을 뿐이다.<sup>54)</sup>

이러한 선사시대를 거친 제주 역사는 탐라·탐부라·모라 등 여러 부족국가

53) 第13回 全國少年體育大會準備委員會, 「밝고 활기찬 제주도」, 1984, pp. 24~28.

54) 濟州道·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의 先史遺蹟 綜合調查報告書」, 1986, pp. 7~11.

로 발굴되어 숙종 10년(1105년)까지 이어져 내려 왔으나 웅대한 왕국이나 고도의 문화국가를 이루지는 못했었다.

이러한 역사 전개 과정에서 백제가 강해지면 백제에 조공을 바쳤고, 신라가 통일되니 신라를 섬겼으며, 고려가 전국되니 거기에 속국이 되면서 독립국가의 명맥을 이어 왔을 뿐이다.

고려 숙종 10년(1105)때 비로소 고려의 중앙집권제 밑에 들어가 탐라군이 되었지만 1273년 고려 원종때 삼별초군이 입도하여 지금의 애월읍 고성리에 항파두리 토성을 쌓아 항거하자 몽고군의 지원으로 이를 토벌한 것이 계기가 되어 몽고의 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약 1세기에 걸쳐 몽고의 지배를 받는 동안 제주사람들의 괴로움도 괴로움이었거니와 제주문화나 생활양식에 끼친 몽고의 영향의 컸을 것은 짐작키에 어렵지 않다.<sup>55)</sup>

조선기에 들어 와서도 제주는 버림받은 벽지로서 취급을 여전히 받았다. 그래서 정객·학자들의 유배지로 이용되었다. 김정·정은·송시열·김춘택·김정희 등 수많은 정객·학자들이 대를 이어 유배되어 내려 왔는데, 이들의 혼학으로 인해서 제주에 유학의 보급과 문화발전에 큰 변모를 일으켰다는 점은 제주의 문화를 살피는데 놓칠 수 없는 대목이다.<sup>56)</sup>

이러한 역사의 흐름은 각박한 풍토적 조건을 이겨낸 토속적 생활문화에 중앙의 문화를 융화시켜 특이한 제주의 민속 문화를 발전시켜 놓았다.

## (2) 文化的 特性

앞서 살펴 본 바와같이 제주가 지닌 특수한 자연환경적 조건과 그 위에 각박하게 역사는 도서문화성, 서민문화성, 고유문화성이라는 제주적인 문화의 특성을 형성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55) 濟州道, 「濟州道誌」 下卷, 제주도 1982, p. 678.

56) 上揭書, p. 679.

도서문화성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풍토적 조건속에서 형성되고 그 조건에 적응토록 발달되어 온 문화의 특성을 의미한다. 도서를 대륙과는 달리 문화의 교류가 적어 특수성을 지니게 마련이며, 그 문화는 다양하면서도 협소한 경향을 띤다. 이런 특성은 여러가지 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니, 우선 산업면에서 농업은 보리·조 등 잡곡 경작이 중심을 이루었고, 축산은 방목이라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어업은 연근해 조업이 중심이 되고 또한 해녀작업이라는 특수 어로형태를 갖게 되었다.

또한 초가지붕, 가옥구조, 노동복인 <갈옷>, 건축에 있어서의 석재 이용, 돌담 울타리, 석구, 석상, 기타 의·식·주 생활의 특이성들도 이 특성의 산물이며, 이것들과 구조적 관련성을 띤 민요·설화·신앙의례·예능 등도 이러한 성격이 농후하다.

서민문화성은, 제주도민의 생활문화가 그 역사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특성이라 하겠다. 독립국가로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고도의 문화국가를 이루지 못했으니 거대한 왕궁도 없고 불만도 왕조의 유물·유적도 없다. 고려이후 중앙집권체제상에 편입되어서도 항상 버려진 벽지 도서 취급을 받아 왔기에 유족문화의 유물·유적은 아주 미미한 것일 수 밖에 없었다. 각박한 풍토를 강인한 의지로 개척 활용하여 전개해 온 서민적 문화가 온 섬을 뒤덮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고유문화성은, 역대 왕국문화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문화개신파의 영향을 제일 늦게 받게 마련인 입지적 조건에서 비롯된 특성이라 하겠다. 새로운 중앙 문화가 늦게 들어왔고, 그래서 고유의 옛 문화를 변색됨이 없이 고스란히 이어온 것이다. 제주도의 방언·민속 등의 여러 문화현상들이 특이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다른 어느 시·도 보다도 한국의 고대문화성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 해서 학계의 주목을 끄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 2) 濟州道 文化祝祭의 實態

### (1) 無形文化財의 保存 實態

제주의 특수한 자연환경과 특이한 역사 그리고 제주만이 지닌 고유하고 서민적이고 도서성 짙은 문화를 배경으로 제주의 민요·공예기술·제의 및 놀이 등의 제주의 무형문화재는 형성되었으며, 그 실태들은 곳곳에 원색 짙은 모습으로 전승되고 있다.<sup>57)</sup>

무형문화재의 대상이 되는 민요, 무용, 공예기술, 양식 및 놀이, 음식제조 등 무형문화재원들은 수없이 많은 편인데, 그 가운데서 보존전승의 가치가 있는 것만을 살펴 보아도 제주도가 진중한 무형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민요 종 목

음악 분야에 있어서는 민요가 으뜸이다. 모든 민요가 그렇듯이 제주도 민요는 제주도의 민간생활 일체를 반영한다. 즉 제주의 민요속에는 제주도의 지리·역사·민속·산업·종교·경제·사회구조 및 사고양태가 그대로 뭉뚱그려져 축약되어 있다.

이러한 제주민요의 대부분은 노동요다. 노동요는 제주도 민요에 있어서 그 양이나 질로 보아 주종을 이룬다. 그리고 제주도의 민요는 우선 노동요와 비노동요로 나눌 수 있다. 노동요는 이를 농업요·제분요·어업요·관망요·벌채요로 나눌 수 있으며, 비노동요로는 '옛타령'과 '잡요', '만가'로 대별하여 '타령류'로 묶을 수 있으며, 그리고 동요는 따로 독립시킬 수 있으니 우선 제주도 민요는 삼대분되는 셈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민요는 노동요 1,100여수를 비롯해서 모두 1,500여수로 나타나고 있다.<sup>58)</sup>

제주도 민요의 분류에 의한 대표적 곡목들은 <표. 13>과 같다.

57) 上揭書, pp. 678~679.

58) 金榮敦, 「濟州道民謠研究·上」, 一朝閣, 1965, pp.4~23에 수록된 민요 수임.

(표. 13)

제주도 민요 분류 현황

구분	종류 및 표준어 명칭	제주 현지 고유명칭	비고		
음악 외적 기능요	노동요	김매는 소리 - 긴 김매는 소리 - 짧은 김매는 소리 - 아왜기 소리* 타작하는 소리 발 밟는 소리 발 밟는 소리 따비질 소리 보리이삭 훑는 소리 흙덩이 비추는 소리**	사대소리/검질매는 소리 - 진사대 소리 - 쪽른사대 소리 - 아왜기 소리 마당질소리/도끼질소리 밭 불리는 소리 밭 가는 소리 따비질 소리 보리 훑는 소리 굽베질 소리	* 는 특수명칭이어서 표준어에서도 그대로 사용함. 그리고 이 민요는 서우제소리, 영랑주심경가와 동일가락의 민요임. **이 민요는 도끼질소리, 짚매리는 소리와 동일형태의 가락임	
		어업요	노 젓는 소리 넙치 후리는 소리 떼배 젓는 소리 갈치 낚는 소리 자리돔 그물질 소리	해너질소리/좁수질소리 넙후림소리 떼위 젓는 소리 갈치잡는 흥생이 소리 자리잡는 소리	
	동요	제분요	방아짙는 소리* 맷돌 돌리는 소리 연자방아 돌리는 소리	남방에 지는 소리 꺾래 꺾는 소리 물방에 꺾는 소리	* 방아짙는 사람수와 노래방법에 따라 한풀, 두풀, 세풀 등으로 분기 가능함.
		인양요	꿀베는 소리 도끼질 소리 툽질 소리 나뭇잎 내리는 소리	출비는 소리/총애기소리 도끼질소리/낭끈치는소리 툽질소리/낭싸는소리 낭 꽃어 내리는 소리	
	잡역요	관망요	망 건 짜는 소리 탕 건 짜는 소리 양태 짜는 소리 갓 모자 짜는 소리	망 건 짜는 소리 탕 건 짜는 소리 양태 짜는 소리 갓 모자 짜는 소리	
		잡역요	방앗돌 굴리는 소리 밧줄 훑는 소리 밭판 무질 소리 - 토 풀부질 소리 - 푹떡 풀부질 소리 짚 매리는 소리* 흙질 불판 소리	방앗돌 꽃어올리는 소리 밧줄 훑는 소리 밭판 무질 소리 - 밧판 불미질 소리 - 토 불미질 소리 - 푹떡 불미질 소리 짚 두드리는 소리 흙질 불판 소리	* 이 민요는 도끼질소리와 동일함.
	의식요	행상 소리 - 운상 소리 - 염부 소리 달구질 소리 진토 파는 소리 서우제소리* 꽃 염불 소리	행상 소리/영장 매영가는 소리 - 영장 매영가는 소리 - 염부 소리 달구질 소리 진토긋 파는 소리/술기소리/권력 소리 서우제 소리 꽃 염불 소리	* 이 민요는 아왜기소리와 동일함.	
		자장가	자장가	에기구덕 흥그는 소리	
	음악 내적 기능요 (통속민요)	오돌또기, 이야흥타령, 너영나영, 봉지가, 산천소곡, 용천검, 길군악, 사랑가, 흥타령, 동풍가 등	현지명과 표준어명을 동일하게 사용	이 외에도 유입민요들은 다수 있다.	
	동요	각종 동요	각종 동요	별로 분류해야 할 것임	

자료 : 제주도, 「제주도지」, 제3권, 제주도 1993, p. 1244.

## ② 민속무용 종목

무용분야는 제주도 무형문화자원 가운데서 빈약한 종목의 하나이다. 의식무·정재무·탈춤·민속무 등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가운데서 의식무, 즉 굿춤이 대부분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했던 무용은 물허벅을 지고 추는 '허벅춤', 해녀들이 작업을 끝내고 흥을 돋구기 위해 추는 '해녀춤' 등이 있으며, 굿춤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을 맞으면서 추는 '삼석 올림춤', 심방이 요령을 들고 사방 천지를 열어가는데 과정에서 추는 '도업연물춤', 신의 문을 열고 닫는 내용을 추는 '감상기춤', 본향신을 청해 들이는 과정에서 추는 '본향들임춤', 부정을 없애는 과정에서 추는 '향로춤', 신을 엄중하게 모시며 추는 '도량춤', 신에게 염원을 축원하는 '수룩춤', 잡귀를 쫓아 낼 때 추는 '푸다시춤', 신을 즐겁게 환송할 때 추는 '복춤' 등이 있다. 이러한 의식무는 무속이라는 신앙의례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춤으로서 학술적·예술적 가치에서는 매우 진중한 무용이라 하겠다.<sup>59)</sup>

## ③ 의식 및 놀이 종목

큰 굿으로서는 '초감제', '초신맞이', '초상계', '추물공연', '석살림', '보세감상', '관세우', '불도맞이', '일월맞이', '초공본풀이', '초공맞이', '이공본풀이', '이공맞이', '삼공본풀이', '갯상계', '시왕맞이', '세경본풀이', '제오상계', '삼공맞이', '양궁숙임', '세경놀이', '문전본풀이', '본향드리', '각도비념', '영계돌려세움', '궁웅만판', '물놀이', '가수리', '뒤맞이' 등이 있다. 작은 굿으로서는 '귀양풀이', '성주풀이', '거무영청대전상', '영감놀이', '칠성새남', '문전비념', '칠갈이', '맹감', '산신맹감', '칠성제', '불뚝제', '할망비념', '마누라베송', '구삼싱냄', '넋들임', '푸다시', '두린굿', '불찍굿' 등이 있다. 이외에도 도내의 마을마다 매년 당굿이 베풀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굿 가운데서 대표적인 놀이로서는 '영감놀이', '물놀이', '칠성새남', '구삼싱냄', '전상놀이', '세경놀이', '산신놀이' 등이 연극의 원초적

59) 北濟州郡, 「제25회 한라문화제 출연작품 해설. 연물놀이」, 북제주군, 1986. pp. 3~4.

예능을 지닌 대표적 놀이들이다.<sup>60)</sup>

이러한 곳 이외에 공동체 의식으로서 대표적인 것들로서는 도내 전마을에서 베풀어지는 마을제인 포제를 비롯해서 각 문중에서 베푸는 묘제, 삼성혈에서 행제되는 춘·추제 및 건시대제, 향교에서 봉행하는 석전제 등이 지금도 전승되고 있다.

#### ④ 지정 무형문화재 종목

이처럼 제주도의 무형문화자원은 그 보존실태가 다양하고 원색질은 모습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 보호 전승시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요분야는 오돌또기, 산천초목, 맷돌노래, 봉지가 등이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인 제주민요로 지정되었고, 해녀노래, 방앗돌 굴리는 노래, 멸치 후리는 노래 등이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공예기술분야는 갓일, 탕전장, 망전장 등이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로, 덕수리 불미공예, 정동벌립장이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의식 및 놀이분야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칠머리당굿이 지정되었다. 송당리 마을제, 남읍리 마을제, 영감놀이가 각각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보호·육성 전승되고 있다. 음식제조분야로는 성읍 민속마을 오메기 술이 지정 전승되고 있다.<sup>61)</sup>

이러한 무형문화재를 보존·전승·육성시키고 있는 기·예능보유자 및 전수생, 이수생을 보면, 국가지정은 보유자가 4명, 보유자 후보 3명, 보유단체가 1단체, 전수생 2명, 조교 2명, 일반전수생 4명, 이수생 3명이며, 도지정은 보유자가 7명, 보유자후보 5명, 일력교 6명, 전수장학생 2명, 보유단체가 7개 인정되었다.

제주도 무형문화재 현황은 <표. 14>과 같다.

60) 玄容駁, 「濟州道巫俗資料辭典」, 新丘文化社, 1980, pp. 5~6.

61) 濟州道, 「濟州道無形文化財 調查報告書」, 제주도, 1986, pp. 21~26.

〈표. 14〉

제주도 무형문화재 현황

분 야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지정년월일
민요편	국가지정 95호	○ 제주민요 - 오돌또기 - 산천초목 - 봉지가 맷돌노래	도 일 원 " " "	'89.11
	제주도지정 1호	○ 해녀노래	"	71. 8.26
	제주도지정 9호	○ 방앗돌 굴리는 노래	남제주군안덕면덕수리	'86. 4.10
	제주도지정 10호	○ 멸치후리는 노래	북제주군구좌읍동김녕리	"
공예기술편	국가지정 4호	○ 갓 일	제주시도두동 북제주군조천읍조천리	'80.11.17
	국가지정 67호	○ 탕전장	제주시화북동	"
	제주도지정 7호	○ 덕수리풀무공예	남제주군안덕면덕수리	86. 4.10.
	제주도지정 8호	○ 정동벌립장	북제주군한림읍덕수리	
제 의 및 놀이 편	국가지정 71호	○ 제주칠머리당굿	제주시전입동	'80.11.71
	제주도지정 2호	○ 영감놀이	도 일 원	71. 8.26
	제주도지정 5호	○ 송당리마을제	북제주군구좌읍송당리	'86. 4.10
	제주도지정 6호	○ 남읍리마을제	북제주군에월읍남읍리	'86. 4.10
음식제조	제주도지정 3호	○ 성읍민속마을 오메기술	남제주군표선면성읍리	'90. 5.30

자료 : 제주도, 문화현황(문화예술·문화재), 1995. pp. 60~62

(2) 傳統文化 種目 實態

제주도에는 전통적으로 행해져 왔으나 이제는 거의 사라져 버린 민속놀이적 축제 종목들이 많다. 1958년 1회 때부터 1994년 35회 때까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sup>62)</sup>에 제주도 대표로 출연했던 종목들만해도 상당 수에 이르고 있어 이들을 재현한다면 훌륭한 문화상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현황은 〈표. 15〉와 같다.

62)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는, 문화체육부 주최로 매년 10월에 열리는 축제로서 이북 5도까지 포함한 각 시도 대표단이 참여하는데, 민속축제로서는 그 규모가 한국에서 제일 크다.

〈표. 15〉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 현황

회 수	시행년도	개최지	출 연 사 항	
			참 가 종 목 (팀)	수 상 내 용
1	1958	서 울	말 뛰기놀이, 무당춤	장 려 상
2~4		"	불 참	
5	1964	"	입춘굿놀이, 허벅춤	
6	1965	"	입 춘 굿 놀 이	장 려 상
7	1966	"	세 경 놀 이	문화공보부장관상
8	1967	부 산	영 감 놀 이	대 통 령 상
9	1968	대 전	영 등 굿 놀 이	국 무 총 리 상
10	1969	대 구	해 너 놀 이 양 인 생 송 근 우	문화공보부장관상 개 인 상 장 려 상
11	1970	광 주	조 리 회 양 성 옥	공 로 상 개 인 상
12	1971	전 주	해 너 놀 이 송 근 우	장 려 상 개 인 상 공 로 상
13	1972	대 전	불 참	
14	1973	청 주	입 춘 굿 놀 이	장 려 상
15	1974	부 산	달 구 노 래	공 로 상
16	1975	서 울	비 바 리 송 미 옥	장 려 상 공 로 상
17	1976	진 주	멸 치 후 리 는 노 래	국 무 총 리 상
18	1977	수 원	조 팔 다 지 는 노 래	공 로 상
19	1978	춘 천	검 질 매 는 노 래 정 소 암 화 전 놀 이	공 로 상
20	1979	대 구	불 무 노 래	문화공보부장관상
21	1980	제 주	방 앓 돌 굴 리 는 노 래	대 통 령 상

회 수	시행년도	개최지	출 연 사 항	
			참 가 종 목 (팀)	수 상 내 용
22	1981	인 천	집 줄 놓 는 노 래	문화공보부장관상
23	1982	광 주	산 신 놀 이	예 총 회 장 상
24	1983	안 동	테 우 만 드 는 놀 이	"
25	1984	충 주	연 신 맞 이 굿 놀 이	문예진흥원장상
26	1985	강 룡	불 싸 음 놀 이	"
27	1986	천 안	아 웨 기 와 흥 애 기 소 리	"
28	1987	수 원	연 물 놀 이	문화공보부장관상
29	1988	전 주	매 물 이 놀 이	문예진흥원장상
30	1989	마 산	동 김 념 리 해 너 노 래	장 려 상
31	1990	제 주	서 우 켓 소 리 요 왕 맞 이 굿 놀 이	대 통 령 상 (오 경 일) 개 인 연 기 상
32	1991	여 수	망 데 기 질 드 리 는 소 리	공 로 상
33	1992	구 미	화 반 놀 이	공 로 상 KBS 방 송 사 장 상
34	1993	청 주	달 구 노 래	-
35	1994	춘 천	영 등 굿 약 마 회	문화체육부장관상

자료 : 제주도, 문화현황(문화예술·문화재), 1995, pp.35~36.

이들 종목들 가운데서 단일 축제로 재현 가능한 것으로는 화반놀이, 약마회, 입춘굿놀이, 정소암 화전놀이, 조리회 등이 있다. 마당이나 무대종목으로 공연함으로써 관광의 매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는 영감놀이, 세경놀이, 산신놀이, 연물놀이, 멀치 후리는 노래, 방앗돌 굴리는 노래 등이 있다.<sup>63)</sup>

63)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편, 1974. pp. 355~358.

### (3) 現代文化 祝祭의 實態

현대적 감각을 지닌 문화축제로 치러지는 것으로는 종합문화축제의 성격을 지닌 한라문화제를 비롯해서 꽃 축제인 벚꽃 큰잔치, 유채꽃 큰잔치, 억새꽃 큰잔치가 있고, 신화 이벤트적인 것으로는 칠선녀제, 성산일출봉 칠석제 등이 있으며 감귤축제와 고사리꺾기 대회 등도 있다.<sup>64)</sup>

또한 예술축제로서는 탐라합창제를 비롯해서 제주도 미술대전, 전국 민요경창대회를 비롯한 공연예술축제와 전시축제들이 다양하게 베풀어지고 있다.

'95년도 도·시·군별 문화예술행사를 보면 제주도 17건, 제주시 21건, 서귀포시 43건, 북제주군 8건, 남제주군 8건 등 총 127건이다. 제주도와 시·군 및 제주도 관광협회가 '95년도에 기획한 관광 문화축제는 <표. 16>과 같다.

<표. 16> '95 제주도 관광 문화축제 계획

행 사 명	기 간	주 관	비 고
성산일출제	1. 1	남제주군, 성산리	
관광사진 전시회(연중)	3월	제 주 시	
(탐동해변공연장 주변 도로변)			
벚꽃 큰잔치	4. 4.~6.	도 관광협회	
유채꽃 큰잔치	4.14.~16.	KBS 제주방송총국, 제주도 관광협회	
제주도국제시민마라톤대회	4.16.	도 관광협회	국제행사
제1회 고사리꺾기대회	4.10.	남제주군	
제5차 국제공항협회 태평양지역 총회	4.30~5. 5.	한국공항관리공단	국제행사
제1회 아·태 캠핑카라바닝대회	5. 4.~5. 7.	(사)캠핑카라바닝연맹	국제행사
JCI제주 아·태대회	5.29.~6. 4.	제주청년회의소	국제행사
국제요리경연대회	6월	한국관광공사	국제행사
제2회 성산일출봉 칠석제	7월	남제주군 성산리 마을회	

64) 제주도 관광과, 「환상의 낙원」, 제주도, 1995, pp. 51~55.

행 사 명	기 간	주 관	비 고
제주국제트라이애슬런대회	7월	한국철인3종경기본부	국제행사
제11회 바다낚시대회	"	서귀포, 서귀포낚시연합회	
제1회 제주국제비엔나레전	8. 1.~17.	미협 제주도지회	국제행사
제1회 국제관악제 겸 대한민국 관악제	8.15.~20.	관악협회 제주도지부	국제행사
국제수중촬영대회	9월	대한수중협회	국제행사
제2회 시민낚시대회	"	제주시, 도 낚시연합회	국제행사
제1회 서귀포 칠십리거리축제	"	서귀포시, 칠십리거리축제위원회	
제34회 한라문화제	10. 7.~13.	예총 제주도지회	자매결연 국가참가
제주감귤축제	10월	KBS 제주방송총국	
제17회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전	"	제주도	
억새꽃 축제	"	제주도 관광협회	
수렵대회	11월	제주도 관광협회	국제행사

### 3) 濟州道 文化祝祭의 問題點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주도의 무형문화재를 비롯해서 전통문화축제 종목, 현대문화축제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이 많음에도, 이러한 문화자원들이 체계화 전략화 되지 않아서 문화 관광상품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무형문화재와 전통문화축제 종목들이 전승, 재현의 여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무형문화재의

경우 비지정된 종목에 대해 새로운 조사 연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정된 무형문화재인 경우는 1년에 한번 정기 공개는 물론 이를 계속 공연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이를 관광자원화 해야 함에도 현재는 지정·보존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밝히고 있는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sup>65)</sup>에 관한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번째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이미 발굴되고 공연되어 그 작품의 가치가 큰 것으로 인정된 전통문화축제 종목들을 자원화 시키지 못하고 사장된 점을 들 수 있다.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우젯소리〉, 〈방앗돌 굴리는 노래〉, 〈영감놀이〉를 비롯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멀치 후리는 노래〉 등은 제주적 문화 특성을 잘 드러낸 작품일 뿐만 아니라 〈영등굿 약마희〉 등도 민속축제 종목으로 뛰어난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일정 장소에서 정기 공연하거나 계절축제 또는 마을축제로 재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세번째는, 열리고 있는 축제들이 체계화 되어 개최되지 않으므로써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즉 시간적으로는 사계절별로, 공간적으로는 바다와 도심과 마을과 들과 산 별로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주관처도 예총, 관광협회, 마을, 시·군 등으로 다원화 되어 이를 체계화하고 전략화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문화축제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축제종목의 발굴과 전승, 문화예술 축제의 육성, 행정의 문화매개 강화, 문화축제의 지원체제의 확대 등 행정적 대응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아진다.

---

65) 제주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조에 「제주도 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 V. 濟州道 文化祝祭의 觀光資源化와 行政의 對應方案

### 1. 文化祝祭의 觀光資源化 方案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문화관광 상품으로 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 반면 세계속의 관광 제주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정책적인 면에서나 실제적인 문화관광 활동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대 관광이 문화관광을 지향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제주도의 전통문화적인 민속들을 어떻게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즉 사적, 건조물, 민속 자료 등의 문화재들에 대한 관광자원화도 중요하지만, 전통문화 중에서도 축제적인 성격을 가진 민속 유산들과 다채롭게 개최되고 있는 현대 축제와 예술행사, 제주도를 소재로 한 각종 문화이벤트를 어떻게 문화관광자원화 할 것이냐 하는데 관심이 모아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문화 축제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행사를 조정하는 문제와 지역성과 역사성을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실감을 심어주고 관광객들에게 매력성을 제공하는 문제, 지역실정에 알맞는 행사규모의 적정성, 지역주민이 문화의식을 고양시키는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1) 無形文化財의 公演을 통한 觀光資源化

##### (1) 再現對象과 內容

##### ① 방앗돌 굴리는 노래

〈방앗돌 굴리는 노래〉는 연자마의 〈웃돌〉과 〈알돌〉을 큰 바윗돌이 있는 들이나 산에서 만든 다음 이를 동네 사람들이 마을로 굴리어 오면서 부르는 민

요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거의 사라진 운반노동요인데, “솔깃소리”라고도 한다. 연자마를 설치하려면, 이름난 석공을 빌어 제주도 특유의 다공질 현무암으로 마을 바깥에서 이를 마련한 다음 동네에까지 운반해 오는데 참으로 벅찬 일이다. 이를 굴리어 오는데는, 마을의 계원 전원이 동원되는게 보통이다. 이를 굴리어 내리면서 주민들은 “어기영차 어기영차” 방앗돌 굴리는 노래를 부른다. 방앗돌 굴리는 노래는 한분의 앞소리에 따라 일꾼들 모두가 일제히 후렴을 받는 선후창 형식이나 그 가사 내용은 작업실태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원래 부터 듣기 어려운 노래인데다가 노래 연자마가 거의 자취를 감춤에 따라 이 민요는 매우 희귀한 노래가 되었다.<sup>66)</sup>

### ② 멸치 후리는 노래

〈멸치 후리는 노래〉는 백사장이 질펀히 깔린 바닷가에서 멸치를 후릴 때 그 물을 잡아 당기면서 부르는 노래다. 멸치 후리는 작업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수십가구의 제조직에 의해 이 멸치 후리기가 한창인 것은 한 여름철인데, 해안에서 1km쯤 바다까지 나간 떼배(어선) 낚시거루 몇 척이 원을 둘러가며 그물을 넣고 멸치를 어획한다. 이 그물 후리는 싱그러운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멸치후리는 노래는 구성지게 바닷가에 울려 퍼진다. 그 가사 내용은 작업 실태에 연관되게 위주인데, 제주도 특유의 노동요들 가운데서는 펍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게 특색이다. 이 노래는 1976년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제7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sup>67)</sup>

### ③ 칠머리 당굿

〈칠머리 당굿〉은 음력 2월에 영등신에게 올리는 무속부락제로서 일명 ‘영등굿’이라 부른다. 영등신은 흔히 ‘영등할망’이라 부르는 신으로서 음력 2월 1일에 제주를 찾아와 동월 15일에 떠나간다는 신이다. 이 신은 우도로 들어와서

66) 제주도, 「제주의 문화재」, 제주도, 1986, pp. 96~111.

67) 제주도, 「제주도 무형문화재 채보채록집」, 제주도, 1995, pp. 254.

이 기간에 바닷가를 돌면서 미역, 전복, 소라씨를 뿌려 주고 떠난다고 믿어진  
다. 그래서 어민들의 해상안전과 해녀채취물의 풍요를 빌기 위해 이월 초하루  
에 '영등환영제'를 하고 이월 열나흘과 보름사이에 영등송별제를 한다. '영등굿'  
은 매우 오랜 민속행사로써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의시기」 등에 이미 그  
기록이 보인다. 오늘날의 영등굿은 여성들에 의해 주관되고, 심방(무당)에 의  
해 집행된다. 제순은, ① 모든 신들을 청해 앉혀서 축원하는 서제적 제의인 초  
감제, ② 해신인 용왕과 영등신이 내임하는 길을 치워 닦아서 신을 맞아 들이  
고 축원하는 제순인 용왕맞이, ③ 영등신이 미역, 전복, 소라 등 해녀채취물의  
행위를 씨로 뿌려주는 행위를 모의적으로 실현하고, 흥풍을 점치는 씨점, ④  
각 가호의 일년간 행운을 점치고 마을 전체의 액을 막는 순서인 산반음과 액  
막이, ⑤ 짚으로 만든 자그마한 배에 갖가지 제물을 조금씩 넣고 영등신을 바  
다로 보내는 배방선 순으로 진행된다.<sup>68)</sup>

육지에서도 영등신앙은 있지만, 마을제적인 곳으로서 행하는 곳은 제주만이  
어서 제주특유의 해녀신앙과 생활민속이 담겨 있는 〈칠머리 당굿〉은 민속신앙  
내지 민속예능면에서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 ④ 송당리 마을제

〈송당리 마을제〉는 무식부락제로서 주로 마을의 여성들에 의하여 관리되고  
심방(무)으로 하여금 무속의례방식(굿)으로 거행하는 당굿이다. 이 마을제에서  
모시는 당신은 제주도 당신의 조종으로서 과세문안굿(음 1월 14일), 마불림제  
(음 7월 14일), 십만대곡제(음 10월 14일) 등이 행해져 왔으나 후자의 두 제의  
는 거의 사라졌다. 제물은 마을의 부녀자들이 마련하고, 상단골들이 제의를 준  
비한다.

제차는 ① 제신을 청해 드리는 초감제, ② 신에게 감사한 부락민의 성 연력  
을 각각 고하고 기원하는 예명올림, ③ 목향신을 청해 드리는 본향 드림, ④

68) 장주근·현용준, 「제주 칠머리 당굿 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88, pp. 5~38.

동네 유지인 삼헌관이 배례하고 소지를 사르며 축원하는 삼헌관참례, ⑤ 신과 군졸 및 잡신들을 대접하여 사귀는 삼천군병사궐, ⑥ 당 소속 차사에게 마을 전체의 액을 막는 마을도 액막음, ⑦ 각 가호별로 축원해 주고 신의를 점치고 신을 대접하는 자손들과 문음, ⑧ 신을 보내고 끝맺는 도진 순서로 진행된다. 마을 주민들 공동제의라는 점에서 지역성과 화합성이 넘치고 민속예능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녔다.<sup>69)</sup>

#### ⑤ 남읍리 마을제

〈남읍리 마을제〉는 남성들에 의해 관리되고 남성 유지들이 제관이 되어 거행하는 유식 마을제로서 포제라고 부른다.

행제는 매년 음력 정월초 정해일 남읍리 금산공원내에 있는 포제단에서 지내며, 모시는 신격은 토신지위, 포신지위, 서신지위 등 3위이다. 제의관리는 여성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제물은 전사관이 준비하는데 종류는 백미메·좁쌀메·도재·포·어수·오과·예주 등이 일반적으로 준비된다.

행제는 제때가 가까와 오면 제단에 제물을 진설하고 지내는데, 제단 옆에서 삼헌관이 정례하고 집례가 부르는 홀기에 따라 거행한다. 그 순서는 오편례, 초헌례, 독축, 아헌례, 종헌례, 음복 등의 순인데, 그 방식은 향교의 제법과 꼭 같은 식으로 거행된다. 행제가 끝나면 제청으로 돌아와 음복하고 끝난다. 이 마을제는 마을 신앙을 통해 도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다.<sup>70)</sup>

#### ⑥ 영감놀이

〈영감놀이〉는 「도깨비」(도채비) 신에 대한 굿이면서 놀이이다. '도깨비' 신이란 도깨비 불을 인격화한 신이다. 영감신들은 본래 일곱형제로서 그들이 각각 전국의 유명한 산악을 차지하여 갔고, 그 중 맨 막내동생이 제주 한라산을 차지하여 왔는데, 이 신은 돼지고기, 수수범벅 따위를 즐겨 먹고 미녀를 좋아

69) 제주도, 「제주도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주도, 1986, pp. 199~215.

70) 상계서, pp. 195~196.

해서 범접하는 망칙한 성격도 있다.

이 신을 잘 모시면, 일시에 거부가 되게 해 준다고 하여 집안의 우호신으로 모시기도 하고, 선신, 대장간신, 마을의 당신으로도 모셔지기도 하여 그 기능이 다양하다. 이 놀이는 여인에게 범접해서 병을 주고 있는 영감신을 그의 형들로 하여금 데려가 버리게 하여 병을 치료하는 주술종교적 내용의 굿놀이지만 가면을 써서 신으로 분장한 심방(무당)들이 극적 의례를 빌여서 가면극의 원초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영감놀이〉는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미분분화적 종합예술체라는 점에 민중의식이 깃들여 있는가 하면, 연극의 본래적 기능과 굿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 민간에서 전승된다는 점에서 주목될 뿐만 아니라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sup>71)</sup>

## (2) 觀光資源化 方案

### ① 定期的 公開

무형문화재는 기록보존과 전수교육을 통해 원형을 보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연 등 공개행사를 정기화하고 활성화하여 기·예능의 계속 연마와 전문가의 비판 및 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고, 특히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널리 보급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정기적으로 공개되는 무형문화재는 〈제주칠머리당굿〉의 경우 음력 2월 14일 칠머리 당에서, 〈송당리 마을제〉는 음력 1월 13일 송당리 본향당에서, 〈납읍리 마을제〉는 납읍금산공원 포제단에서 음력 정월 상정일에 행제를 하고 있을 뿐 나머지 종목들은 정기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공개되고 있는 종목들도 그 정기 공개 이외에 비정기공개를 활성화시켜 이를 관광자원화로도 연계시켜 나감은 물론 덕수리 풀무공예의 경우 새로 〈불미

71) 제주도, 「제주도 문화재 및 유적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 1973, pp. 195~196.

마당)을 축조하여 농번기에 공개하여 생산활동과 연계시켜 나가면 바람직할 것이다.

민요와 놀이류는 한라문화제때 공개행사를 갖고, 또 국민학교 운동회때 마을 축제로 공개해서 원형을 전승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인간문화재대전을 개최하여 종합전통축제의 성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공개 전승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데는 행정적 입장에서는 지원을 담당하고 종목별 또는 마을별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보존회를 설립, 공개행사의 주관 및 집행, 그리고 전수교육의 확산보급 운동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② 普及 傳承 事業의 推進

보급 전승 사업의 방법은 다양하나 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는 음반·영상자료의 제작 보급과 향토축제에 청소년 출연종목용 신설, 특성 전통 예술운동의 전개 등을 꼽을 수 있다.

민요류는 음반과 녹음테이프로 제작·보급하고 굿류와 민속놀이 등을 영상자료로 제작하여 보급한다. 제작과정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므로 방송국과 연계시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을별로 특성전통예술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바람직한 보급·전승 방안의 하나가 되리라고 본다. 마을마다 그 마을에서 특색있게 전승되는 민요나 굿, 민속놀이 등이 있으므로 이를 마을육성 종목으로 정해서 추석이나, 운동회 등을 계기로 공개해 나간다면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성읍민속마을에서는 걸공을, 동김녕리에서는 멀치후리는 노래와 해녀노래를, 덕수리에서는 방앗돌 굴리는 노래를 공연하여 육성시킨다면, 전승차원에서도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관광객들이나 조사 외래인들도 그 시기에는 제주의 원색 짙은 무형자원을 보고 널리 선양하게 될 것이다.

그 방법은 한라문화제 등 향토축제에 출연했던 마을부터 매년 3~4개 마을씩 선정하고 전승행사비를 지원해 나간다면 가능하리라고 본다. 계속 추진중인 범외없는 마을 선정과 같은 방법이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와 병행해서 향토축제에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경연종목도 다양하게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 ③ 無形文化財의 宣揚

무형문화자원은 발굴 보급·전승하는 일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를 내외에 선양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 역시 다양하지만, 전승문화교육의 강화, 자료관의 설치, 공연단의 육성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면서 그것이 내실화되면 다른 방법을 더욱 개발해서 선양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승문화 교육은 교육용 교재와 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의 개발 제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담당 교사들에게 재교육을 계속 실시해야 하며 교과과정에 향토문화교육 과정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이 서로 협조해서 추진한다면 가능하다. 두번째 추진해야 할 것은 역시 지방방송과 공동으로 영상프로그램을 제작, 정기적으로 방송하여 일반인들에게 확산시켜 그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그 후에는 제주도 문예회관이나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에서 관람자에게 보여줌과 병행해서 분기별 전통문화교육 강좌를 설치해서 활용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조사된 자료들은 한곳에 정리·보관하여 관람·연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공연단 육성도 시급한 일이다. 이는 단순한 선양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무형의 자원을 유형 관광자원화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도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현재 도립으로 민속예술단이 창단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군별로 민간 관광사업자들과 공연

단을 창단하여 운영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여겨진다. 현재의 표선민속촌이나 성읍민속마을, 중문관광단지 등에서 상설 공연하면 전승 측면에서나 문화관광자원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다.

## 2) 傳統祝祭의 再現을 통한 觀光資源化

### (1) 再現對象과 內容

#### ① 화 반 놀이

오늘날 제주도민의 생활에서 “꽃반”이란 이름의 민속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및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원일조(元日條)에는 “꽃반”이란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다.

“제주도 풍속에, 초하루부터 대보름날까지 보름동안 산·숲·내·못·언덕, 그리고 돌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심방이 탈을 쓰고 신의 독(蠶)을 받들고 징과 북을 쳐 울리면서 동네를 돌아다닌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 돈을 그 독에 넣는다. 이것을 “꽃반”이라고 한다.”

(濟州俗凡山藪川池邱陵墳衍木石俱設神祀每月元日至上元 巫覡擊神蠶作儺戲錚鼓前導出入閭里民人爭損財錢以實神名日花盤)<sup>72)</sup>

내용이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날까지의 산·숲·못·내언덕·돌 따위와의 제사이고 보니, 이는 오늘날 이 고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간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당제(堂祭)가 아니었던가 보아진다.

#### ② 떼몰이 놀이(躍馬戲)

「동국여지승람」 및 「동국세시기」 등에는 “영등굿”, “떼몰이 놀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72) 진성기, 「남국의 민속놀이」, 흥인문화사, 1975, p. 24.

“이월 초하룻날 제주도의 귀덕·김녕·애월 지방에서는 열 두개의 나무 장대를 세우고 신을 맞아서 제신을 즐겁게 하고, 긴 나무 장대 끝에다 색채 비단으로 말머리 같이 꾸며 가지고 ‘떼몰이 놀이’를 한다. 이 때에 밤에는 등불을 매달아 켜므로 이 제를 영등굿이라고 하며, 이 제는 이월 초하루에 시작하여 보름날에 마치는 것이다.

(濟州俗二月朔日 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迎神祭之 涯月居人得槎形如馬頭者 飾以帛作躍馬戲以娛神 至望月乃止謂燃燈)

라고 기록되고 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옛 풍속이다.<sup>73)</sup>

### ③ 입춘굿놀이

‘입춘’이란 한 해를 24계절로 나눈 첫번째 계절을 뜻한다. 이 날은 ‘새 철 드는 날’이라 해서 모든 생활이 이 날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입춘굿’이란 입춘날에 베풀어지는 굿놀이의 한 가지이다. 이는 관 주도로 행하던 무속의 하나이다. 해마다 입춘전일에는 전도의 수십방이 관덕정 또는 동헌에 모여서 전야제를 치루게 된다. 이 전야제 때에는 미리 만들어 두었던 나무로 된 소 모양을 끌어 내어 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연극적인 상황을 벌이기도 했다.

다음날 심방들은 군복을 입고 목우를 끌며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악기를 갖춘 사람들과 탈을 쓴 기대장, 엇광대, 빗광대, 초란광대, 갈채광대, 할미광대 등이 나아가고, 그 뒤에는 어린 기생들로 하여금 보호하면서 따라가면 북, 장고와 징 따위 무악기 소리를 울리며 호장을 호위하여 관덕정 앞 마당에 이른다. 이 때 여기에 모여 든 심방 수는 보통 1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로서 이 굿놀이의 성격이나 규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호장은 심방들을 민가에 보내어 여러가지 곡물들을 얻어 오게하고 그 얻어온 곡식에서 그 여물고, 안 여문 상태를 보거나, 또는 보리밭에서 보리를 뽑아 오게 하고는 그 보리 뿌리의 돌아남을 보고 새해의 농사에 흉풍의 조짐을 점치곤 하였다고 한다.

73) 현용준, “제주도의 영등굿”, 『한국민속학』 창간호, 민속학회, 1969, pp. 177~135.

다시 일동은 동헌에 이르러 호장이 쟁기와 따비를 잡고 와서 받을 가는 시늉을 하면 한 사람은 빨간 가면(탈)에 긴 수염을 단 농부로 꾸미고 오곡의 씨앗을 뿌리며, 또 한 사람은 새털로 꾸민 옷을 입어 새로 가장하고 무엇을 주워 먹는 시늉을 한다. 다른 한 사람은 가죽옷을 입은 사냥꾼이 되어 그 새를 쏘는 체 한다. 이 때에는 반드시 여자 가면을 쓴 두 사람이 서로 씨앗 싸움을 한다. 그러면 남자 가면을 쓴 사람이 나타나서 제 부인들의 씨앗 싸움을 말리는 체 하는 연회를 한다.

연회의 전 과정이 끝나면 호장은 물러가고 심방들은 관덕정 마당에 이르러 북, 장고를 치면 춤을 추며 뱅뱅 돌다가 마지막에는 초감제 본풀이(천지 개벽 신화)를 비롯한 무가를 낭창하며 태평과 풍년을 빈다.<sup>74)</sup>

#### ④ 정소암 화전(鼎昭岩 花煎) 놀이

3월 3일이 되면 정의현감(旌義縣監)이 삼안관속과 육방하인, 그리고 선서관기를 거느리고 성읍(表善面 城邑里) 성북(城北) 영주산 서쪽에 있는 “정소암”이라는 놀기 좋은 곳에 가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를 “정소암화전놀이”라고 하였다.

이 때 노는 가운데, 기생들은 “신목사타령” “사랑가” 등의 민요를 부르며 사령들은 칼춤을 추는데, 이 칼춤은 비명에 죽은 죄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향교의 선비들은 글을 지어 풍월을 다투었으며, 이 때에 장원을 한 사람에게는 황봉(黃封)이라 해서 그 상품을 술로서 주었다고 한다.

해마다 이 때가 되면 정의현 안에 각 마을에서 모여든 양반들도 참석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자리에서 지방의 양반들은 원님에게 지방의 어려운 일을 진정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날만은 백성이 관리에 대해서 얼마쯤 불경(不敬)한 태도를 보여

74) 현용준·문무겸, “제주도의 세시풍속”, 「제주의 민속 I」, 제주도, 1993, pp. 103~109.

도 관에서는 벌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sup>75)</sup>

### ⑤ 조리회(照里戲)

제주도의 민속놀이에서 오늘날 “조리회”라는 놀음은 찾아보기 어렵지마는, 동국여지승람 및 동국세시기 등에는 “조리회”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8월 보름날, 제주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노래와 춤의 모임 열어서 큰 성황을 이루는데 노래와 춤이 끝나면 또 좌우 두 패로 나누어 줄 당기기를 하여 승부를 다투는 것이다. 이 때 대개는 줄 한 가운데가 끊어져서 좌우 양패가 모두 땅바닥에 쓸어지고 뒹굴어지게 되어, 모였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웃음통이 터지니 이것을 ‘조리회’라고 한다.”

(濟州俗每歲八月望日男女共聚歌舞分作左右隊曳大索兩端以決勝負 索若中 絕兩隊仆地則觀者大笑以爲照里之戲 是日又作鞦韆及捕鷄之戲)<sup>76)</sup>

## (2) 觀光資源化 方案

첫째, 〈화반놀이〉는 정월달의 歲時놀이므로 마을축제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안덕면 덕수리나 한림읍 명월리 등의 시범 문화 마을과 성읍민속마을 등지에서 놀이를 복원하고 이를 점차 확산시켜 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된다. 화반놀이는 상징축제로 개발하고, 각 마을에 당굿과 포제가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사이에 행해지므로 이들 축제와 연계시킨다. 여기에다 윷놀이, 제기차기, 자치기 등의 민속놀이들을 프로그램화 한다면 마을축제의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된다.

둘째, 〈약마회〉는 원래 음력 2월 영등달에 행해지던 민속놀이였으므로, 국가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인 칠머리 당굿에서 재현시켜 축제화 하는 방안이 좋을

75) 玄春植, “濟州道の 傳承 演戲” 「濟州의 民俗 I」, 제주도, 1993, pp.454~458.

76) 진성기, 전제서, p.88.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형문화재의 전승차원에서 원 모습을 재현하는 한편, 이를 확대하여 여름철의 바다축제로 확대하면 훌륭한 해양 축제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시·군별이나 수협별로 테우 경주 축제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여기에 현대적 감각을 부여하기 위해, 윈드썰핑, 모터보트 경주 등을 연계시킨다면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도 테우를 직접 노 저어 보도록 하는 것도 경조민속으로서의 매력성을 드높일 수 있다고 보아진다.

셋째, <입춘굿 놀이>는 제주시 관덕정을 중심으로 도시 민속 축제화하여 거리 축제로 치르면,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2~3개의 입춘굿놀이 팀을 동별로 만들어 시연 형식을 취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나 사회 단체로 확산해서 놀이패를 만들어 경연형식을 취한다면 도심축제가 없는 제주에서 향토성을 드러낸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기에다 옛날에 전승되던 관덕정 설렁탕도 부활시켜 먹거리를 제공하고, 참석자들에게 가면을 제공하여 연회에 참석시킨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또한 이 축제와 연계시켜 각종 민속놀이들을 경연 시키고 결국까지 결들인다면 매력있는 문화관광 상품이 될 것이다.

네째, <정소암 화전놀이>는 들놀이 꽃축제로 재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유채꽃, 벚꽃, 진달래, 철쭉 등이 피는 봄이 되면 일반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축제를 펼치되, 화전은 물론 과전, 반대떡, 빙떡 등 전통적 전류의 음식경연대회와 꽃처녀 선발, 원님선발대회 등을 결들이면 좋은 꽃축제로 승화될 수 있으리라고 보아진다.

다섯째, <조리회>는 추석절의 세시축제로 발전시키면 훌륭한 축제가 될 것이다. 줄다리기를 제대로 고증하여 핵심종목으로 육성하고, 그네뛰기와 닭불잡기 놀이를 연계시킨다면 축제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여겨진다. 줄다리기는 읍·면·동별 대상으로 하거나 마을 대항, 학교 대항전으로 하고, 그네뛰기는 여성

들을 중심으로 펼치면 된다. 여기에다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관광상품으로서의 매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여섯째, 이 외의 영감놀이, 세경놀이,<sup>77)</sup> 신신놀이<sup>78)</sup> 등의 굿놀이 종목들은 제주 칠머리 당굿 보존회 등의 문화재 보유단체를 활용해서 제주해변공연장이나, 관광민속관 등에서 정기로 공연을 하도록 한다. 다른 민속 종목들도 현대적 감각에 알맞게 구성하여 제주도 민속예술단 등으로 정기적으로 공연케 함으로써 문화관광자원화가 가능한 것들이다.

### 3) 現代祝祭의 特長化를 통한 觀光資源化

#### (1) 特長化 對象과 內容

##### ① 꽃 축 제

봄에 치러지는 벚꽃 큰잔치와 유채꽃 큰잔치, 가을의 억새꽃 큰잔치는 제주의 자연풍물을 관광자원화 한다는 취지 아래 개최되는 관광축제다.

〈벚꽃축제〉는 제주도가 왕벚나무 자생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벚꽃이 피는 4월 초순경에 제주시 전농로에서 펼치는 도심 축제이다. 벚꽃축제에는 풍물놀이를 비롯해서 불꽃놀이, 에어로빅 및 사물놀이 시범공연, 기네스 도전게임, 노래와 춤 경연대회, 노래방과 진기명기, 관광객 참여 도전게임이 펼쳐지고 먹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된다.

〈유채꽃 큰잔치〉는 제주도의 특산물인 유채꽃을 관광자원화 한다는 취지 아래 시작된 것으로 유채꽃 필 무렵에 펼쳐진다. 시·군별로 장소를 번갈아 가면서 열리는데 연예인 초청 축하쇼, 노래자랑, 국악 한마당 등의 행사가 펼쳐지고, 부대행사로는 향토음식점 개설과 향토 특산물 판매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77) 제주도, 「노영나영 한마당·제3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보고서」, 제주도, 1990, p. 199.

78) 상계서 pp. 223~225.

〈억새꽃 큰잔치〉는 제주도의 가을 정취를 드러내기 위하여 억새꽃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들놀이 축제다. '93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이 축제는 10월에 한라문화제가 끝난 다음에 열리는데 걸궁마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종목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sup>79)</sup>

## ② 한라문화제

한라문화제는 1962년 제주예술제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온 제주도의 대표적 문화축제이며, 전국의 10대 향토축제로 치러질 만큼 위상이 높다. 기간은 매년 10월 첫째 토요일에 개막되어 일주일 동안 열리는데, 축제의 목표는 제주의 향토적 문화전통을 살리는 축제의 특장화, 내외인들이 문화의 마당에서 어울리는 축제의 명절화, 자연풍물과 특산물을 연계시켜 관광상품화 하는 문화의 자원화에 두고 있다.

축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속문화축전 : 개막축제, 민속예술축제, 민속놀이축제, 사투리축제, 전국민요경창대회, 조랑말축제, 바다축제, 내고향 풍물장
- 예술문화축전 : 공연축제(음악, 무용, 연예, 국악 등), 전시축제(미술전, 사진전, 서예전 등), 경연축제(백일장, 사생대회), 예술인 축제 등
- 관광축제 : 시·군별 관광축제, 국내외 예술사절단 초청공연 등
- 생활문화축전 : 생활체육축제, 자조문화축제 등<sup>80)</sup>

## ③ 예 술 행 사

제주도에서도 음악, 미술, 연극, 국악, 사진 등 공연행사와 전시행사가 다양하게 연중 개최되고 있다. '94년의 경우 문화예술행사는 총 212회가 열렸는데,

79) 제주도 관광과, 「환상의 낙원」, 제주도, 1995, pp. 52~54.

80) 예총제주도지회, 「제31회 한라문화제·팸플렛」, 1994. pp. 3~4.

제주도 문화진흥원 자체에서 39건, 시·군 주관 28건, 문화예술단체의 자체행사가 113건이나 되었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춘계(3~5월) 18%, 하계(6월~8월) 35%, 추계(9월~11월) 29%, 동계(12월~2월) 18%이다.

제주도 문예회관 이용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행사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공연 전시장의 이용 실태는 5년 평균으로 147일이며, '94년의 경우 연 159일을 활용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행사별 평균 관람인원(대극장의 경우) 300여명, 관람자는 주민과 학생이 99%이고, 관광객은 1%정도이며, 행사 시기는 여름과 가을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sup>81)</sup>

문제점으로는 예술행사의 대중화 미흡, 중앙과 지방문화의 연계 부족, 문화예술 단체의 자생활동 능력의 미흡, 관광업계와 문화단체간의 연계성 미흡,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투자인식의 결여, 여름과 가을의 집중화 등을 꼽을 수 있다.

## (2) 觀光資源化 方案

첫째, 유채꽃 큰잔치와 벚꽃 축제 등을 봄의 축제로 상호 연계시켜 특장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언급한 화전놀이 형식도 도입하고 여기에 예술행사와 먹거리, 놀거리 종목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된다면 단일행사의 성격도 드러날 수 있고, 종합적인 문화관광 축제로서도 그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도 전통문화축제를 연계시켜 상징축제로 개발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둘째, 한라문화제는 종합축제로 더욱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주최, 주관의 문제, 내용의 문제, 장소의 문제, 시기의 문제, 예산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한라문화제의 성격과 내용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점이다.

---

81) 제주도문화진흥원, 「제주도문예회관」 제주도문화진흥원, 1993, pp. 17~40.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한라문화제의 주제를 정하는 일인데, 현재의 나열식 방식에서 〈전통〉을 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속축전은 물론 예술 축전도 제주도의 문화적 특성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

음악의 경우 제주도를 소재로 하는 음악축제, 무용과 연극도 제주도를 소재로 하는 예술축제, 미술도 제주도를 소재로 하는 미술축제 등으로 특장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예술행사들은 다른 곳에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축제 방식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기간을 한 달 정도로 삼아서 민속축제, 음악축제, 미술축제, 연극축제 등을 일주일 정도씩 특장화 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여기에도 외국이나 내외국의 대표적 예술단을 초청하여 국제축제로 승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보아진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징축제의 개발이 급선무다. 강릉 단오제의 경우 단오제 자체가 상징행사이고, 진도 영등제는 바다가 갈라지는 자연적 현상이 상징축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라산신제라든가 돌과 바람등 삼다의 풍물을 어떻게 축제의 소재로 상징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점도 심도있게 고려할 사항이다.

셋째, 예술행사의 관광자원화도 종합적 시각으로 접근해 나갈 때가 되었다고 보아진다.

우선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것은 문화예술 행사의 연중 프로그램화를 통한 특장화가 필요하다.

기념일 예술 행사처럼 시기를 조정할 수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공공기관과 단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음악축제인 경우 탐라합창제를 중심으로 일정 기간동안 연다든지, 미술축제인 경우로 제주도 미술대전을 중심 축으로 다양하게 전개한다면 그 효과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움직이는 공연장, 움직이는 전시장으로 전환하여 실내에서 실외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음악과 무용과 미술 등이 연계된 종합프로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계절별, 월별, 주간별 프로그램도 구상되어야 한다.

네째, 중앙 문화예술 단체와 지방 예술 단체와의 공동 공연 전시 행사도 개

최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의 예술행사가 높은 수준으로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좀더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중앙의 고급예술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훌륭한 문화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행사장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제주해변 공연장은 대중과 함께하는 열린무대로, 제주도 문예회관은 특정 예술과 만나는 예술공간으로, 관광 호텔은 특성있는 예술 프로그램의 공연 전시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특수 공연장, 즉 선상음악회 같은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에서 원칙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문화 관광자원화를 한다는 미명 아래 각 예술 영역의 특징이 무시되어, 본 말이 전도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사가 먼저 수렴되어야 한다.

#### 4) 새로운 祝祭 開發을 통한 觀光資源化

전통 문화축제의 재현과 기존의 문화예술 축제의 활성화는 제주의 문화관광에 큰 영향을 줄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축제 개발이 필요하다. 새로운 축제개발은 제주도와 연관성을 지니면서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제주의 신화를 소개로 한 이벤트의 개발이다. 지금 성산일출제와 칠석제, 서귀포시의 칠선녀제 등이 시도 되고 있지만 이를 좀더 확대하고 질을 높여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성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삼성신화를 소재로 이벤트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성신화는 제주도의 개국신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설화의 하나이다. 따라서 성산읍 혼인지와 삼사석 삼성혈로 이어지는 이벤트를 개발하되, 현재 삼성사에서 매년 봉행하고 있는 춘제나 추제, 건시대제와 연계시켜 2~3일간 행사를 펼치거나 아니면 한라 문화제 등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모색될 만하다.

또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서귀포를 중심으로한 서불과처의 신화 이벤트이다. 서불 일행이 동남동녀들을 거느리고 바다로 들어와 한라산의 불로

초를 캐는 것까지 구상한다면 축제로서 만이 아니라 제주도가 장수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내외에 선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절부암 전설, 사굴전설 등 여러 가지 전설을 소재로 한 작은 이벤트 개발도 관광의 매력을 더 해 주는 문화상품이 될 것이다.

둘째, 굿 축제를 개최하는 일이다.

현대에서 굿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점차 퇴조하고 있고, 이를 민속예술로 보는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국가나 시·도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전승시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도 칠머리 당굿이나 영감놀이 등이 무형문화재로 지정 보존하고 있고, 많은 굿놀이 자원들이 무형의 자산으로 남아 있다. 제주도가 굿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한국의 굿들을 모아 굿 축제를 열고, 이를 동남아 등지로 확대하여 연다면 훌륭한 자원이 될 것이다.

셋째, 세계적인 문화이벤트를 개발하는 일이다.

제주도가 '97년도부터 '섬의 축제'를 개최할 것을 구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과 더불어 장르별 이벤트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의 춤 축제를 비롯해서 미술축제, 음악축제, 민속축제 등 세계화를 기할 수 있는 축제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文化祝祭의 觀光資源化를 爲한 行政의 對應方案

문화의 발전은 여타의 발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의 발전지표는 바로 근대적 인간성과 문화적 생활, 그리고 문화적 만족 등의 척도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발전의 과정 속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경우 건전한 시민문화(civic culture)의 육성을 위한 발전행정적 지원과 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시적 맥락속에서의 발전 전략은, 인간성의 개발과 문화적 수준 및 건전한 가치, 의식의 발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문화 발전의 과제이기도 하

다. 문화 적응론적 전략보다는 문화 창조론적 시각에서의 문화 발전전략이 필요하고, 전통적 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보완적 관계에서의 문화 발전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sup>82)</sup>

문화의 발전전략에도 여러가지 학설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안정 균형적 발전전략, 급진적 정책의 발전전략, 정신문화 우위에 의한 발전전략, 문화창조론적 발전전략이 있다.<sup>83)</sup>

문화관광의 활성화도 바로 문화 발전 정책의 하나이다.

따라서 문화 축제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행정적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것은, 바로 정신문화우위에 의한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새로운 문화창조를 통해 건전한 관광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축제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방안이 아무리 다양하고 내용이 충실하게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체계화하고 전력화하는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구상단계에서 머물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개발을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개발과 관광자원의 보호와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up>84)</sup>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도 여러가지의 접근 방법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경제의 원리인 생산-유통-소비의 논점에 입각하여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즉,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 예술가와 예술단체는 문화예술의 생산자, 즉 문화 예술의 주체이며, 행정은 문화예술의 생산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유통의 기능을 지녔고, 일반 주민과 관광객들은 문화의 소비자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들의 관계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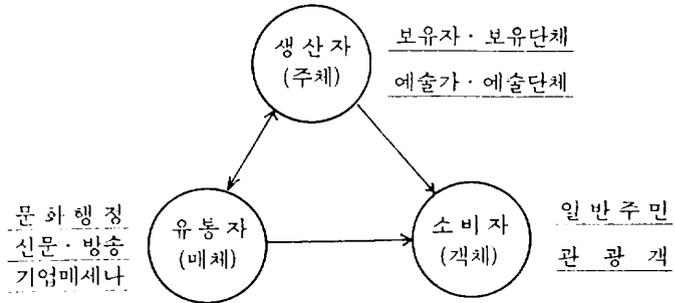
82) 金令鍾, 著 「發展行政論」, 法文社, 1992, pp. 191~192.

83) 上揭書, pp. 190~191.

84) 孫在植, 「現代地方行政論」, 博英社, 1981, p. 218.

〈그림. 3〉

문화예술의 생산·유통·소비 관계도



자료 : 필자의 구상에 의해 작성됨.

### 1) 文化祝祭의 綜合的 體系化

#### (1) 綜合的인 體系化

지금까지 문화축제를 관광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형문화재 공연, 전통축제의 재현, 문화예술 축제의 특장화, 새로운 축제의 개발을 그 대상으로 삼아 고찰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부분적으로 단위화 할게 아니라 종합화가 필요하다.

첫째, 시기적으로는 절기축제가 필요하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나 추석, 단오들의 절기에 맞춘 민속축제, 예술축제, 이벤트의 개발과 진흥이 요구되며, 이와 아울러 광복절, 개천절,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의 국경일이나 기념이래 맞추어 각기 성격이 드러나는 축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지역별 축제의 개발을 들 수 있다.

도시지역 축제로서는 도심이나 주변 공원과 녹지를 이용하여 그 특성에 알맞는 축제를 개발하고, 도시내의 거주지역에 따라 동단위 축제와 아파트 축제,

상가 축제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풍농제, 풍어제를 비롯하여, 각 지역에 맞춘 축제와 각 지역의 전통 민속놀이와 역사적 인물, 사건 등을 소재로 한 축제의 개발이 요망된다.

셋째, 현대인의 감각에 알맞는 새로운 축제의 개발이다.

전문인들에게 의뢰하여 현대적 감각의 축제를 개발하고 축제기획 전문단체에 의뢰해서 연구된 형식을 시험적으로 축제화 하며, 결과 보고 및 평가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정립하고 보급하는 일이 중요하다.

넷째, 각 축제들이 상호 연계된 종합 프로그램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절기적으로 배분되고, 장소가 확보되어, 새로운 축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단위 축제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연출시키지 않는다면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성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다섯째는 축제내용의 질적 향상이 도모되어야 한다.

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수시로 펼쳐진다고 해도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절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좀더 고급화 하여야 관광객들이 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 (2) 文化 祝祭 樣式의 開發

향토 축제는 전통 양식이 있는 것이고 현대 축제는 소위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이벤트적인 요소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 물론 여러가지 양식이 있을 수 있지만 축제의 정신과 양식이 잘 맞아야 하는 것인데 요즈음 행하고 있는 축제들을 보면 양식으로써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첫째, 참여에 대한 욕구와 의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참여 욕구를 촉진하는 것은 참여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심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축제가 요즈음 현대인들을 만족시킬 만한 기쁨, 즐거움, 재미를 주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말하자면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

이 보러오는 사람들보다 더 생각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 욕구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한다.

둘째, 전통양식을 역동적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즐거움만 주어서는 안된다. 축제에 참여했을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큰 발견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축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요소를 축제 속에 가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발견과 더불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어야 계속 심리적인 욕구가 생기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육적으로 어떤 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현하고 싶은 심리가 그 축제의 요소로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그것은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고향에서 하는 축제에 참여하고 싶은 귀향 심리를 일으켜야 한다. 대부분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는 귀향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 즉 참여 욕구를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서 축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전통적인 것이든 현대적인 것이든, 양이 많은 적든간에 그런 요소들이 축제 프로그램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참여 욕구를 갖는다.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축제의 양식이다. 축제의 양식은 죽은 양식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통적인 양식은 살리되 그것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살아나야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셋째, 전문성을 높혀 나가야 한다.

축제의 향락화와 무질서는 오히려 우리가 건전한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축제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되는 것이다. 사실 축제는 향락화와 무질서가 조금씩은 있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어떤 향락으로부터 건전성을 회복하는 문화적 치유 내지는 병리 현상을 회복하는 기능을 축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

에 축제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인데, 말하자면 축제를 문화의 꽃이고 문화의 장이고 살아있는 문화의 현장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봉사 정신을 갖고 귀향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 축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정통성 상실이라는 것은 축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이 축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참여자들에게 축제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다시 안겨 주는 축제의 기획자 또는 축제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재교육 등 계몽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각종 회사나 산업체에서 하고 있는 현대 축제에도 비전문적 요소가 많이 보인다. 따라서 현대 축제의 독특한 이벤트 행사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無形 文化資源의 發掘 傳承

### (1) 發掘 調査의 持續的 展開

발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종목들은 무진장한 편이다.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추려보면, 민요의 경우 노동요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조사하고 민속놀이의 경우 전상놀이, 세경놀이, 입춘굿놀이 등 종목명만 전해지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조사,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무가 및 굿류도 미신의 일종으로 여기지 말고 전통문화적 예술적 차원의 중요성을 감안,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굿은 노래의 문학성과 음악성, 춤의 무용성 등이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종류별, 지역별로 조사해야 한다.

조사방법은 연차별 발굴조사계획을 세워 대학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또는 도가 주관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내용은 앞에서 기술한 무형문화재의 보존방법을 원용하는게 좋을 것이며, 조사연구 결과는 제주의 민요, 제주의 서사무가, 제주의

곳, 제주의 무무, 제주의 민속놀이 등의 명칭으로 연차별 시리즈로 펴 내어야 한다.

## (2) 無形文化財의 記錄 傳承

첫째, 映畵 및 비디오 촬영 보존이 요구된다.

무형문화재는 시간예술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예술성의 전개를 낱알이 반복하여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영상화시켜야만 실질적 기록 보존 방법이 된다고 본다. 의식 및 놀이인 마을제나 굿도 그 준비 과정부터 행제과정까지 전부 촬영해 두어야 할 것이며, 민요류도 녹음은 물론 동작과 행동까지도 반드시 촬영하여야 한다.

'94년말 현재 제주도 무형문화재가 영상화가 된 것은 칠머리 당굿과 갓일, 탕건장이 문화재 관리국에 의해 영화로 촬영되었고, 제주민요·영감놀이·오메 기술 담그기가 제주도에 의해 촬영되었다. 남읍리 마을제와 송당리 마을제가 비디오로 촬영되었으나 이 종목들도 완전한 기록 보존용의 자료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촬영 보존은 연행될 때마다 여러번 실시하여 이동 점을 비교 검토하여 원형과 변화상을 밝혀내고 그 원형을 연구 제시토록 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녹음·전사·채보 기록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요와 양식 및 놀이류에도 거기에 따른 가창이 있고, 공예기술에도 작업실 태에 따른 노래가 있으므로, 이 부분의 노래 가사를 녹음하고 이를 글로 옮겨 책자화 하여 보존하고 나아가 그들 노래의 음악적 채보 작업도 시작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작업은 연구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행정이 주도한 작업이 없으므로 앞으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계획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양식 및 놀이, 민요, 마을제 등에도 춤이 뒤따르므로 무보의 채보 작업도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셋째, 해설서 및 보고서 발간이 필수적 사업이다.

1986년 제주도에서 지정종목에 대한 사후보고서인 「제주도 무형문화재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칠머리 당굿 보고서」가 발간되기는 했다. 그 보고서들은 그 개요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종합적인 해설서 및 종목별 보고서 발간은 매우 시급하고 긴요한 실정에 있다. 종합해설서는 역사적 유래에서부터 기·예능 전수과정, 연희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역사·문학·음악·무용·연극적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종목별로는 종목자체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망라해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내어야 한다.

이외에도 미지정된 무형문화자원에 대한 조사 기록이 필요함을 물론이다. 미지정된 것 가운데서도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이미 지정된 종목들의 보존 방법을 원용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국가나 도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확대해 나가야 마땅하다.

### (3) 傳授 空間 造成



전수공간의 조성이 절실한 과제이다.

무형문화재를 전수하는 데는 반드시 그 전수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의 전수실태를 보면 국가 및 도지정을 막론하고 보유자의 가정집이 전수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수회관의 건립, 놀이마당의 조성, 현장공간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지금의 민속자연사박물관 및 제주도문예회관 연계시켜 건립함으로써 기·예능 전수교육장의 기능은 물론, 자료 조사 연구실 및 생산된 공예품의 전시 등 다목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칠머리당, 송당 본향당 등 양식 및 놀이 분야는 현장 공간 전승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덕수리 풀무공예의 경우는 풀무시설을 좀 더 완벽하게 재현해야 할 것이다.

멸치후리는 노래나 방앗돌 굴리는 노래의 경우는 방앗돌을 비롯해서 당선, 망선, 그물 제작 등 소도구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수교육과 전승체계가 현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文化藝術 主體의 育成

#### (1) 無形文化財 保有者와 保有團體의 育成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기·예능을 뜻하는 것으로서 현존 자연인에 의하여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지정하고자 하는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지니고 있는 자연인을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로 인정하여야 하는 바 이들을 육성하는 것이 곧 전통문화를 전승시키는 기초적인 노력이다.

'94년말 현재 제주도의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현황은 <표. 17>과 같다.

<표. 17> 제주도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및 보유단체 현황

구 분	계	보유자	보유자 후보	조 교	이수생	전 수 장학생	일 반 전수생	보 유 단체
계	55	11	8	8	14	4	2	8
국가지정	28	4	3	2	14	2	2	1
도 지정	27	7	5	6		2		7

자료 : 제주도, 문화현황(문화예술·문화재), 1995, p.66.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주도내에 있는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는 국가지정이 4명, 도 지정이 7명 등 11명이며, 보유단체는 국가가 1단체, 도 지정

이 7단체이다. 이들 기능 보유자들에게는 현재 생계비를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전수생들에게 전수교육을 시킴과 아울러 일년에 1~2회 정도 의무적인 정기공개를 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유자와 보유단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생계비의 현실화, 보유단체의 확대지정, 그리고 보유자 후보와 조교, 이수생, 전수장 학생 등의 발굴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관광자원화의 측면에서는 이들을 정기공연의 주체로 육성시켜야 된다. 무형문화재 축제를 연다든지 아니면 축제때에 이들이 공연주체로 보유한 무형문화재 종목들을 보여 주도록 하고, 그 댓가로 일정액의 공연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립민속예술단과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합동 공연 등이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마을 단위의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는 현지의 문화축제 전승단체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무형문화재 종목을 축제 종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연에 필요한 소품 제작과 공연장 등을 확보해 주고 회원들이 현지 공연을 통해 관광상품으로 선양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연비를 지원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들은 전통문화 축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육성되어야만 한다.

## (2) 藝術 創造者와 藝術團體의 育成

문화 예술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술활동의 주체자들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전문인 양성으로는 소리와 춤과 연기를 겸비한 인재, 극본, 미술, 연출 등의 스태프, 작곡, 반주자 등이 육성 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 창조자를 양성함과 아울러 공공예술단체의 육성이 필수적인 일이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제주도의 경우 도립민속예술단, 제주시의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서귀포시의 시립합창단 등이 있다. 또한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예술인 집단으로는 예총제주도지회의 가맹단체로서 문인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연극협회, 사진작가협회, 미술협회, 무용협회, 영화인협회, 연예인협회, 건축가협회 등이 있다. 이들은 곧 현대 문화예술 축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창조 주체들인 셈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다 나은 대우와 활동환경을 넓혀주는 것은 물론이며 향토축제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공공예술단을 토속적 향토문화를 전담할 수 있는 단체로 활성화하고 새로운 예술단도 창단하여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표. 18> 제주도 문화예술 단체 현황

단 체 명 (창립일자)	회 원 수	비 고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제주도지회 ('62. 4. 29)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부 ('62. 2. 20)	75	
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부 ('62. 4. 29)	40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67. . . )	65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부 ('77. 7. )	35	
한국연예인협회 제주도지부 ('71. . . )	598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부 ('62. 4. 29)	65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 ('60. 8. 9)	70	
한국건축가협회 제주도지부 ('82. 2. )	20	
한국무용협회 제주도지부 ('68. . . )	35	
한국영화인협회 제주도지부 ('62. . . )	35	
한국관악협회 제주도지부 ('73. 10)		
한국서예협회 제주도지부 ('89. 5. 13)		
제주도 서예가협회 ('90. 3)		

자료 : 제주도, 문화현황(문화예술, 문화재), 1995, p.17.

#### 4) 行政의 文化媒介 機能 強化

앞에서도 언급했거니와 문화예술의 생산, 유통, 소비의 순환적 과정을 검토해 보면, 문화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기능은 축제 창조를 위한 기능, 축제 공급을 위한 기능, 축제를 향유시키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토 문화 축제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개편과 재정의 확대, 축제환경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1) 文化藝術 行政組織의 改編

조직은 일정한 환경 아래서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며 이를 위하여 일정한 구조를 지닌 사회단위이다.<sup>84)</sup> 그리고 목표는 조직이 추구하려고 하는 소망스러운 상태이다. 조직의 목표는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그것은 조직의 활동에 지침을 제공하고, 둘째, 목표는 조직의 존재 자체를 정당화시키며, 셋째, 목표는 조직의 구성원이나 조직의 유효성과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를 제공한다.<sup>8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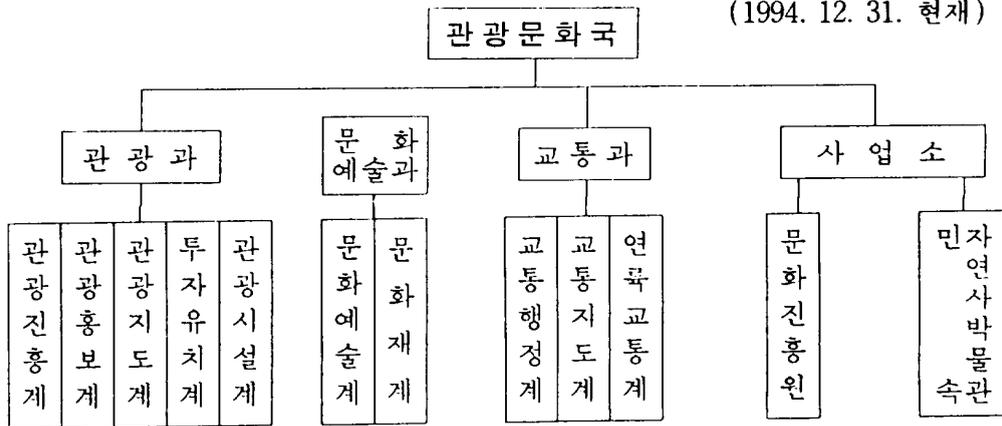
문화축제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행정의 문화매개 역할 강화도 바로 이러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의 하나이다.

제주도를 비롯한 시·군의 문화 관광조직은 <표. 19> 및 <표. 20>과 같다.

<표. 19>

제주도 관광 문화 기구표

(1994. 12. 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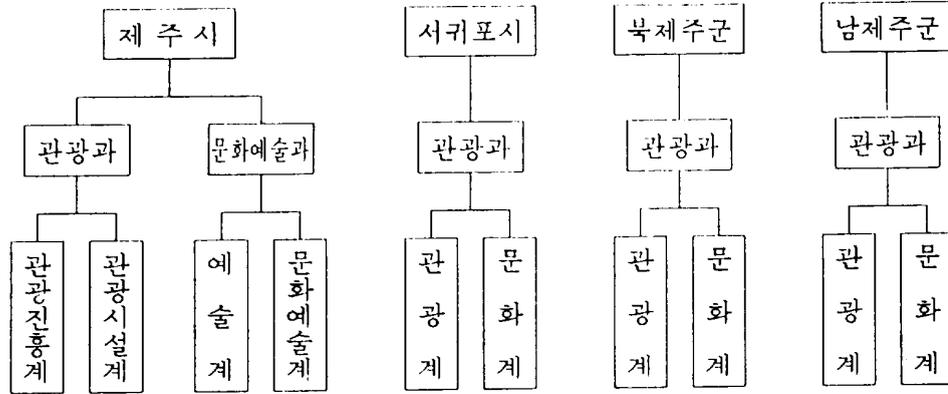


84) 俞 焘, 「行政學原論」, 法文社, 1979, p. 156.

85) 上揭書, p. 162.

〈표. 20〉

시·군 관광 문화 기구표



자료 : 제주도, 각 시·군 행정자치법규집에서 재구성.

제주도 문화예술과 사무 분장표

문 화 예 술 과	문 화 재 계
1. 도사 편찬	1. 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2.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2. 문화재 보호와 보존 및 관리
3. 문화예술 단체의 지도 육성	3. 문화재 위원회 운영
4. 종교관련업무 및 중무활동 지원	4. 향교사찰의 등록 및 재산관리
5. 저작권에 관한 사항	5. 천연보호 구역내의 자연보호 단속
6. 공연장 지도감독	관리
7. 음반 판매업자 지도감독	6. 민속자연사박물관 지도감독
8.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7. 기타 문화재 보호관리에 관한
9. 문화진흥원 지도감독	사항
10. 그 밖의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자료 : 제주도, 현행자치법규집, 1994. p. 87에서 재구성.

제주도의 문화관광업무는 관광문화국 소관인데, 관광문화국은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통과로 조직되어 있다. 관광과에는 관광진흥계, 관광홍보계, 관광지도계, 투자유치계, 관광시설계가 있으며, 문화예술과에는 문화예술계, 문화재계가 있고 교통과에는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연륙교통계가 있다.

사업소로서는 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 박물관이 있으며, 독립민속예술단이 문화진흥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군 조직으로는 제주시의 경우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에서는 관광과에서 관광 업무와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의 경우 전통문화의 보존과 예술 문화의 진흥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관광과에는 관광이벤트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체육 등의 행사는 지도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문화예술과 관광영역이 과단위로 다루기 때문에 지금의 행정조직으로서는 특히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예술 축제의 전략화와 체계화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아쉬운 것은 관광자원을 총괄하는 전담과나 계의 조직이 없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관광자원의 활성화 측면에서 이를 전담하는 전문성 있는 과나 계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시·군까지 하나의 광역화된 전담 조직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공무원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도 행정직과 별정직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직렬을 신설하여 도 문화예술과 문화진흥원, 박물관, 시·군 문화예술조직까지 전문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축제 행정기획단을 먼저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에 관광과 문화예술을 행정적으로 집목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우선 문화축제 기획단을 상설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2) 文化財政의 擴大와 文化環境 改善

첫째, 관광과 문화 예술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의 문화 축제 예산은 도·시·군별로 해당 과에 기본적 경비만을 계산하여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축제다운 축제, 관광자원다운 관광자원의 연출은 힘들다. 따라서 문화관광자원을 위한 예산도 문화예술은 곧 소비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충분히 확보하고 충분히 지원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만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정책적인 입장에서 관광문화의 재정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문예 진흥기금 조성과 같은 제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행정이 재정을 전부 부담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관광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관광 사업계의 참여 지원이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축제장소의 확보 등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제주도내에는 현재 제주도 문예회관과 제주해변공연장 정도가 전문적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민회관 등이 보조적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라문화제의 경우 체육대회처럼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치르는 실정이어서 과연 문화관광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지가 의문시 되고 있다. 따라서 열린 문화공간을 비롯한 대형, 중형, 소형의 축제공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여기에도 행정적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5) 文化祝祭의 支援體制의 確立

문화예술 창조 주체를 육성하고, 행정의 문화관광 지원 역할을 강화하더라도

이를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존 전승하는 운영 지원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문화향유의 확산을 위해서는 총괄적인 정책방향을 개발하고 결정하는 전문위원회와 이를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전문단체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첫째, 문화축제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것은 법적 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지녀도 될 것이다.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학계, 문화 예술계, 관광계, 언론계, 행정계를 포함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축제의 발굴, 축제의 조정, 축제의 지원 등의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둘째는, 문화축제 집행위원회를 민간단체로 설립해야 한다.

예술 총감독을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기획, 진행, 홍보, 준비 등 제반 집행체제를 두어 축제를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충실한 내용의 축제를 개발하는 기능을 보유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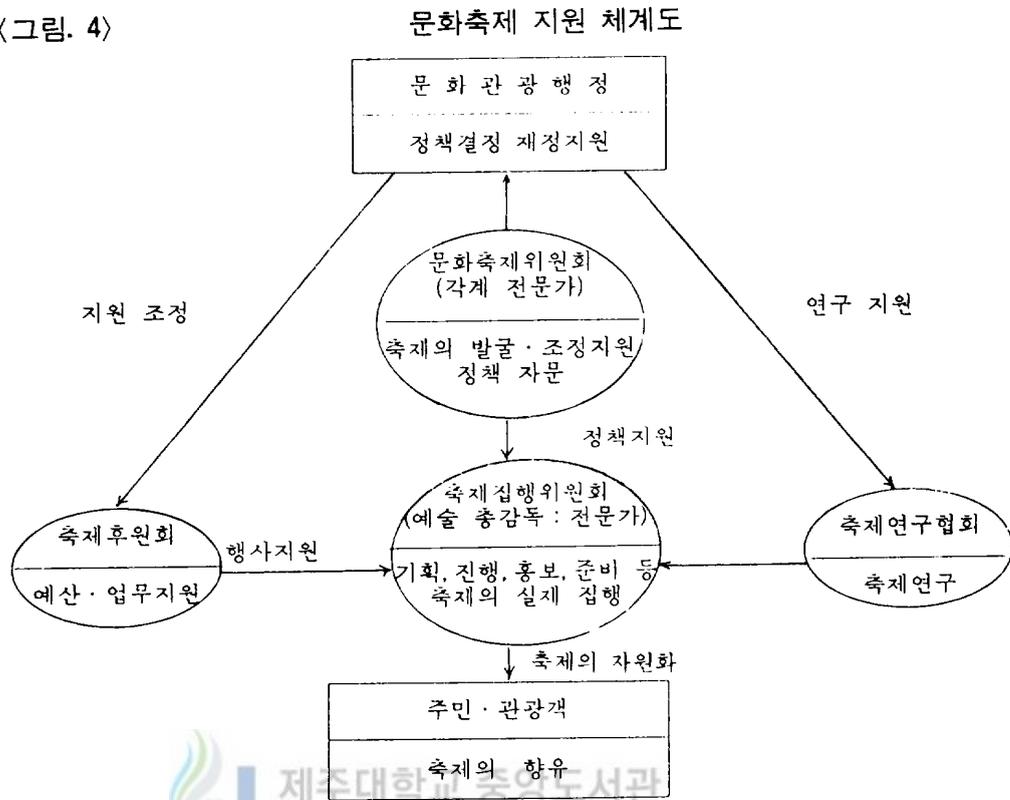
세째는, 문화축제 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축제 예산의 지원, 축제향사에 필요한 각종 업무상의 협조 및 지원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축제진흥재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네째는 축제 연구협회를 설립 운영해야 한다.

축제는 전문적인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이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 연구와도 접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주대학교와 제주전문대학, 한라전문대학, 제주관광 전문대학 관광 관련학과 교수들로 축제연구협회를 구성토록 하고, 행정은 이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문화축제 지원체계를 요약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자료 : 문화축제의 지원체계 확립 결론에 의거, 필자 재구성.

이외에도 축제의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체계의 확대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러한 지원체계를 구성한 다음 시행하면서 파생되는 제반 문제는 보완해 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화축제의 관광 자원화를 위한 행정적 대응방안은, 제주도의 주요산업의 하나인 관광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문화의 발전」이라는 보다 고양된 문화가치로 발전시켜야만 질 높은 문화관광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고찰하였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 사회는 활발한 국토개발과 산업사회로서 이행 과정에서 문화 변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민족적인 값진 문화유산인 전통

문화가 단절되어가고 있음은 물론 제주의 전통문화마저 점차 멸실의 위기의 때문이다.

국가적으로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제주의 한 국가 발전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토개발이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그 결과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져 오랜 역사동안 이어져 오던 제주의 전통문화는 그 맥이 단절되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또한 고유하고 서민적이고 도서성이 짙은 전통 문화권을 형성해 오던 제주도의 경우도, 1960년대부터 정부차원에서 관광을 중심으로 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무형문화자원이 핵을 이루던 전통 문화는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축제마저도 다른 지방과 그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 축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질적으로 수준 높고, 양적으로 증대된 문화가 주도하는 제주관광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 VI.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자연적 경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관광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독특하고 개성질은 제주의 문화 축제들을 관광과 접목시켜 고급 관광자원으로 연출시키므로써 문화주도의 선진형 관광으로 전환시키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행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이론적 배경으로 전통문화의 의의와 문화축제, 문화관광의 유형과 구조를 고찰하였고, 문화축제의 관광 자원화 사례로서 미국의 문화예술축제, 일본의 문화이벤트, 발리의 문화축제 등 외국의 문화축제와 한국의 문화축제들을 다루었다. 또한 제주도 문화관광과 축제의 실태와 문제점으로는, 제주 문화관광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문화축제가 안고 있는 과제를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문화축제의 관광자원화 방안과 이를 위한 행정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연구한 결과 문화축제를 관광 자원화 하는 방안으로는, 무형문화재의 공연을 통한 관광자원화, 전통축제의 재현을 통한 관광자원화, 현대 축제의 특장화를 통한 관광자원화, 새로운 축제 개발을 통한 관광 자원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공개행사를 정기화하고 활성화 해야 한다. 음반과 영상자료를 보급함과 아울러 향토축제에 청소년들이 무형문화재를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단을 육성하여 성읍민속마을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나 관광시설에서 상설 공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축제를 재현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화반놀이, 입춘굿놀이, 약마회, 조리회, 정소암 화전 놀이 등 옛부터 전승되어 오다가 단절된 축제들을 꽃축제, 바다축제, 거리축제, 마을축제, 세시축제로 재현해야 한다. 민속놀이 종목들은 현대적 감각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제주해변공연장, 관광민속관 등지에서 정기적으로 공연한다면 그 매력적인 관광성을 드러낼 것이다.

셋째, 현대축제를 특장화하여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유채 꽃 큰잔치, 벚꽃 큰잔치, 억새 꽃 큰잔치 등 꽃 축제들을 전통문화 축제와 연계시켜야 한다. 여기에 예술행사와 먹거리, 놀거리 등을 체계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아울러 특히 옛날의 꽃축제의 대표적 종목인 〈화반놀이〉를 상징 축제로 개발시켜야 특성있는 꽃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라문화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주관, 내용, 시기 등을 특장화시키고, 이때의 예술축제도 제주도를 소재로 하는 종목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라 산신제, 바람 축제, 돌 축제 등의 상징 축제가 개발되어야 관광의 매력성을 지닌 문화자원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술행사도 연중 프로그램화 하여 움직이는 음악축제, 움직이는 미술축제로 전환되어야 그 특장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음악과 무용, 미술 등 여러장르가 종합화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해야 할 것이다. 삼성신화, 서불과 처전설, 사굴전설, 절부암 전설 등을 소재로 한 신화 이벤트를 개발함과 아울러 제주도가 아직도 굿이 많이 있음에 착안, 굿 축제와 국제 섬 축제 등을 개최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축제의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행정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축제의 종합적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기적으로는 절기 축제의 개발, 공간적으로는 도심 축제의 개발, 형식적으로는 현대적 감각에 알맞는 축제개발, 내용적으로는 축제의 질적 향상 도모, 참여면에서는 주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축제의 역동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서 이를 종합적으로 체계화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무형문화재의 발굴 전승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발굴조사의 지속적 전개와 함께 영화와 비디오 촬영을 통한 기록 보존, 해설서 및 보고서의 간행, 전수교육의 강화와 전수공간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 창조 주체들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보유단체,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사진, 무용 등의 예술단체는 물론, 민속예술단을 비롯한 공공예술단의 육성은 물론 새로운 예술단을 창단 해야 한다. 전문가로는 소리와 춤과 연기를 겸비한 인재, 극본과 연출 등의 스태프, 작곡가 등을 교육과 연계시켜 양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행정의 문화매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도·시군 관광 문화조직을 진단, 관광자원을 총괄한 직제를 신설하고,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 문화직렬을 신설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문화축제 행정기획단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재정을 확충함과 아울러 관광사업계의 참여 지원으로 축제 기금 등의 제도적 재정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형, 중형, 소형의 축제 공간 등을 세우는 문화 환경개선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문화축제 지원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도민과 관광객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문화축제위원회를 설립해서 총괄적인 축제의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축제를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축제 집행위원회를 설립해야 하고,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한 축제후원회를 조직하여 예산, 업무 등을 지원토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축제진흥재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도내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축제연구협회의 설립,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축제연구를 심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축제를 관광자원화하여 제주도 문화관광에 기여한다는 의도를 갖고 출발했지만, 연구대상의 폭이 넓고 선행적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기는 하나, 문화관광을 연구하는데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앞으로 제주관광이 문화가 주도하는 선진적 관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요망되며, 제시된 방안들은 행정적으로 구체화하여 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參 考 文 獻

### 1. 國內文獻

〈單行本〉

- 金榮墩, 「濟州道 民謠研究」, 上, 서울 : 일조각, 1965.
- 金令鍾, 「發展行政論」, 서울 : 법문사, 1992.
- 金正培·鄭承鎰, 「韓國觀光資源論」, 서울 : 형실출판사, 1990
- 孫在植, 「現代 地方行政論」, 서울 : 박영사, 1981.
- 安鍾允, 「觀光用語事典」, 서울 : 법문사, 1985.
- \_\_\_\_\_, 「觀光學概論」, 서울 : 창문각, 1972.
- 李根, 「觀光資源論」, 서울 : 학문사, 1990
- 李相日, 「굿과 놀이」, 서울 : 문음사, 1981.
- 이승훈,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 : 고려원, 1987.
- 任東權外, 「民俗論」, 서울 : 집문당, 1989.
- 林在海, 「한국 민속과 오늘의 문화」, 서울 : 지식산업사, 1994.
- 林嬉燮, 「社會變動과 價値觀」, 서울 : 정음사, 1986.
- 俞焄, 「行政學原論」, 서울 : 법문사, 1979.
- 장주근·현용준, 「제주 칠머리당굿 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88.
- 진성기, 「남국의 민속놀이」, 서울 : 흥인문화사, 1975.
- 韓相福外, 「文化人類學概論」,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 玄容駿, 「濟州道 巫俗資料事典」, 서울 : 신구문화사, 1980.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篇, 1974.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保存」, 1984.
- \_\_\_\_\_, 「文化財」, 第17號, 1984.
- \_\_\_\_\_, 「文化財 管理 便覽」, 1985.
- 文化部, 「문화 가족」, 1990.
- 北濟州郡, 「사물놀이」, 제25회 한라문화제 출연작품 해설집, 1986.

- 濟州道, 「濟州道 文化財 및 遺蹟 綜合 調查報告書」, 1973.  
 \_\_\_\_\_, 「濟州의 文化財」, 1982.  
 \_\_\_\_\_, 「濟州道誌」, 下卷, 1982.  
 \_\_\_\_\_, 「濟州道 無形文化財 調查報告書」, 1986.  
 \_\_\_\_\_, 「濟州道誌」, 第2卷, 1993.  
 \_\_\_\_\_, 「濟州道誌」, 第3卷, 1993.  
 \_\_\_\_\_, 「第31回 全國 民俗藝術競演大會 報告書」, 1990.  
 \_\_\_\_\_, 「濟州道 無形文化財 採譜 採錄集」, 1995.  
 \_\_\_\_\_, 「幻想의 樂園」, 1995.  
 濟州道, 濟州大學校 博物館, 「濟州의 先史遺蹟 綜合 調查報告書」, 1986.  
 濟州道 文化振興院, 「濟州道 文藝會館」, 1993.  
 韓國觀光公社, 「'94 한국 방문의 해」, 1992.  
 韓國文化藝術 振興院 文化發展 研究所, 「文化觀光에 關한 基礎的 研究」, 1989.  
 \_\_\_\_\_, 「傳統文化的 자주적 現代化 方案」, 1989.

〈論 文〉

- 金 庸 來, “地方文化行事的 經營收益化 方案” 「地方行政」, 10月號, 大韓地方共濟會, 1994.  
 金 重 漢, “鄉土文化 이벤트와 觀光連繫 方案”, 「文化主導의 濟州 觀光 活性化 方案」, 예총제주도지회, 1995.  
 金 宅 圭, “傳統文化的 繼承과 無形文化財의 保存”, 「文化財保存」, 文化財管理局, 1984.  
 徐 淵 旻, “民俗文化와 祝祭文化”, 「韓國의 祝祭」, 韓國 文化藝術振興院, 1987.  
 鄭 昞 浩, “춤판의 구조와 특징”, 「韓國의 祝祭」, 韓國 文化藝術振興院, 1987.  
 趙 東 日, “傳統의 退化와 繼承의 方向” 「創作과 批評」, 3號 1966.  
 趙 興 胤, “굿판의 의미”, 「韓國의 축제」,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1987.  
 崔 喆, “축제로서의 놀이판의 의미”, 「韓國의 축제」,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1987.

- 玄容駿, “제주도의 영등굿”, 『韓國民俗學』, 창간호, 民俗學會, 1969.
- 玄容駿, 文武秉, “濟州道の 歲時風俗”, 『濟州의 民俗』, I, 제주도, 1993.
- 玄春植, “濟州道の 傳承演戲”, 『濟州의 民俗』, I, 제주도, 1993.

## 2. 外國文獻

- Outdoor Recreation Resources Review Commission, Outdoor Recreation for America,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1962.
- Jafar Jafari, “The Tourism Market Basket of Good and Servicea”,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1. No. 3. 1974.
- Robert W, McIntosh, C. R. Goeldner, Tourism Principles, Practicas, Philosophias, 5th ed. N, Y : John Wiley, & Sons, 1986.
- Edward Shils, Tradition, The Unirersity of Chicago Press, 1981.
- Alessandro Fialassi, 〈Festival : Definition and Morphology〉, 〈Time out of Time〉, Univ, of New Mexico Press, 1987.
- E. Cohen, “Who is a Tourist? : A Conceptual Corification”, The Sociological Review, No. 2, 1974.
- Neil Leiper, “The Framework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6, No. 4. 1979.
- 津田昇, 『國際觀光論』, 東京 : 東洋經濟新聞社, 1869.
- 日本交通公社, 『觀光用語事典』, 東京 : 日本交通公社, 1973.
- 小谷達男, “觀光開發 ひけたこの 方向性”, 第2回 韓·日 觀光學會 共同研究會 報告要旨, 東京 : 1984.

---

## SUMMARY

### A Study on Administrative Measures of Utilizing Cultural Festivals of Cheju Island as Tourist Resources

Hyon, Choon-shik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Advised by Professor Han, chang-young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ystematic and strategic administrative measures of utilizing unique and characteristic cultural festivals of Cheju Islan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imple "sight-seeing" tourist industry of the Island, and to develop high level cultural tourist resources.

This study is consisted of 6 chapters as follows.

1. The object, scope and method of the study in the introduction.
2. The meaning of traditional culture, the definition of cultural festival, and the pattern of cultural tourism.
3. The comparison between foreign cultural festivals such as cultural festivals in U.S.A, cultural events in Japan, cultural festival in Bali Island and Korean cultural festivals.
4. The present condition of cultural tourism in Cheju Island, the analysis of the problems pertaining to cultural festivals, and the presentation of

administrative measures of utilizing cultural festivals as tourist resources.

5. The public performance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the revival of traditional festivals, the characterizing of nowadays festivals, and the development of new festivals by means of measures of utilizing cultural festivals as tourist resources.

As the result of the study, I come to the conclusion as the following :

First, cultural festivals must be examined synthetically and systematically.

We must develop festivals varying from season to season, being held in downtown, agreeable to the taste of the moderns, and being participated by residents and tourists.

Second, We must gather the data pertaining intangible cultural assets. The study on the traditional festivals must be continued, recording the data as movies, video tapes, and publishing reports.

Third, We must take measures to promote traditional culture and art. There must be taken the measures of training the artists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and supporting organizations of the art such as literature, fine arts, music, drama, photography, and dancing.

Fourth, administrative functions supporting cultural work must be strengthened.

We must reorganize the structure of administrative office, establishing the organization of controlling tourist resource, and staffing specialists in the field of the culture.

We must secure finance for the cultural projects such as festival fund contributed by tourist agencies, and improve cultural environments such as preparing performance sites for festivals.

---

Fifth,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upporting cultural festivals must be established.

We must found cultural festival committee to develop policies pertaining to festivals, and festival supporters' organization with private enterprises, and to support activities.

Festival Research Institute must be organized with university professors and experts to continue the study on the festivals.

It is required the continuous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high level cultural tourism in Cheju Island and the proposed measures must be implemented and enforc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